소학생

國立圖書館藏

12월치

아협발행 73호

즐거운 4한때

한가한 틈을 타서

김의환

내가 사는 곳은 서울역 앞길을 쭉 올라가서 후암동과 도동 사이에 있는 조고만 집이다.

즐거운 한때! 이런 것은 나의 바쁜 하루 생활에서는 찾아내기가 퍽 곤난하다. 딴 선생님들 모양으로 어린아이나 있으면 아무리 바쁠찌라도 즐거운 시간이 생길는지 모르나, 아내와 단 두 식구로서는 별로 이렇다할것은 없고 간혹 영화나 보고 음악이나 들으러 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한때라고나 할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아홉시쯤. 그러니 아침밥상이 언제든지 머리맡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기가 일수다. 집에 있는 동안에는 찾아오는 손님들과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방으로 들어가서 신문사 잡지사 일도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생각해 내기도 하고 그렇고 보니 일하는 시간도 나에게는 즐거운 때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진을 보면 내 키가 기가막히게 작고, 나이도 퍽 많아 보이지마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싶은데 벌써 사진에 뚜렷이 나타난걸 뭐 할수없군, 하하!

소학생

4282년 12월 1일 발행

12월치 73호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의 메모☆

12월4일 김 옥균, 박 영효, 홍 영식 들이 갑신 정변을 일으키다. (서기 1884년)

12월7일 대설.

12월8일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다. (서기 1941년)

12월14일 이씨 조선의 서울을 한양(지금의 서울)으로 옮기다. (서기 1394년 음력 10월 25일)

12월22일 동지. (팥죽 쑤어 차례 지내는 날)

12월25일 크리스머스. (예수•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 〔서력 기원전 4년〕). 겨울 방학.

☆차 례☆

장편소설•아름없는 벌들……정 인택 (34)
모험소설•모오구리……박 은들 (46)

동시•탈프……박 영종 (35)

그림이야기•아기예수……김 은우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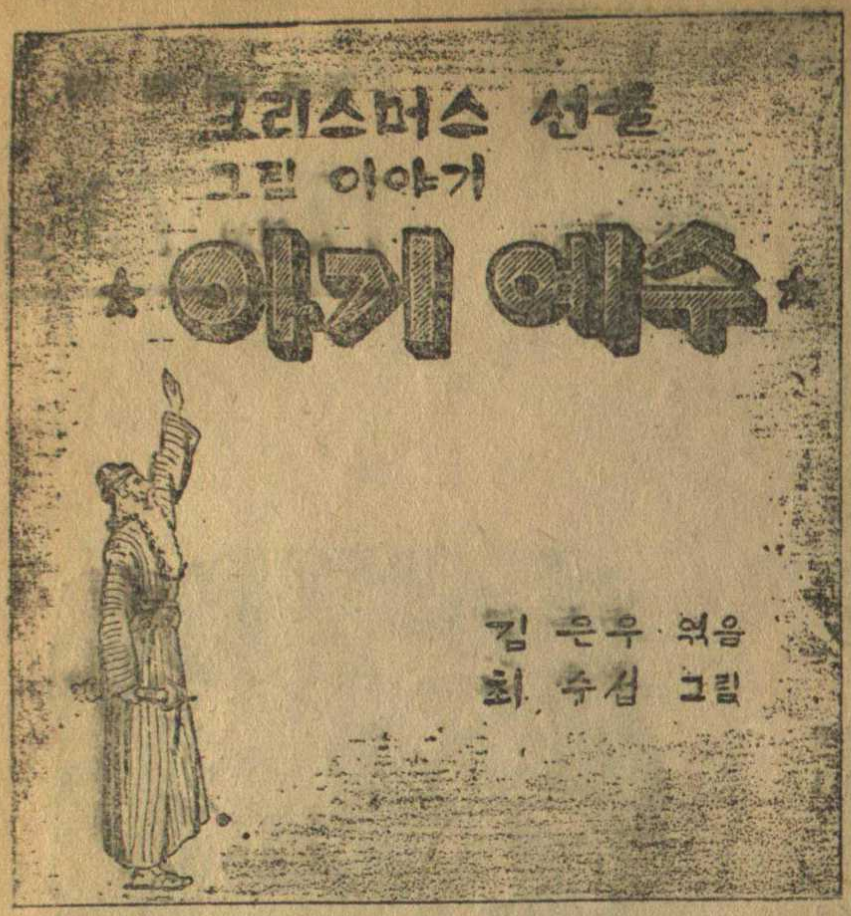
말성되는 정계비……홍 종인 ( )
우리 나라 공부……조 용만 (41)
새 공 부……윤 태영 (10)
새공부 (11월달치의 해답)……(40)
소년상식 문답……(50)

깔깔특집
옛날 어른들의 익살이야기……(12)
① 태설꽃은 오성대감 ② 웃기며꼬집는 정수동 ③ 엉터리짓 잘하는 백문선 ④ 재칫구러기 정만서 ⑤의 스런 봉이 김선달 ⑥ 배꼽빼는 중국 서문장 ⑦ 그밖의 몇가지
척척박사•팔팔박사의 입씨름……(28)
웃음전람화…(13) 우스운 옛시조…(24)
우스운 민요……(30)
동노래•방구타령•먹고•나무타령•가랫질집 영감

화보•한가한 틈을 타서……김 의환 (2)
화보•조금더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55)
화보•꽃파같이 아름다운 눈송이……(56)
만화•아담손 할아버지……(55)
지난달 수학장난 해답……(32)
팔팔박사……(52) ☆척척박사……(10)
소학생클럽……(54) ☆만들고나서……(54)

애독자 아협 상타기 문제……(53)
10월치 아협 상타기 발표……(53)

☆그림 그리신 분☆
김 규택•정 현웅•조 병덕
임 동은•김 의환•최 수섭
곁장•김 규택



① 1953년 전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지만, 그때로부터 또 700년이나 더 오래된 일입니다.

이사야라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豫言者)가 있었읍니다. 그 분은 몇백년 혹은 몇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두 잘 알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말 중에서 특별히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도 구약성경 이사야서라는 책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 탄생하실 터이니 그는 모든 나라들을 다사릴 것이고 그의 이름은 대단히 이상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전능(全能)하신 주(主)라고도 부르며 영생(永生)하시는 아버지시라고도 하며 또는 평화의 왕이라고도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다."

③ 하느님께서는 까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를 요단강(江)이 흘러 들어가는 갈닐리바닷가 팔레스타인의 한 작은 고을 나사렛으로 보내셨읍니다.

그 천사는 먼저 마리아라는 아름다운 처녀를 찾았읍니다. 이 처녀는 이스라엘의 둘째 왕, 지혜와 힘 많기로 제일 유명한 다비드왕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 하기로 약속한 처녀이었읍니다.

까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이 마리아를 만나자 "기뻐하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시리니 안심하고 평안히 있으라!"고 말하였읍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하도 이상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리하여 곧 일어나며 그 연고를 물었읍니다.

④ 천사는 다시 말하였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네가 아기를 배고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아기는 장차 아주 훌륭하게 될 터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될 터이다. 그리고 이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조상인 다비드왕의 왕위(王位)를 네가 낳은 예수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대대로 야곱의 집에 왕이 되어 그의 왕국이 끝이 없이 되리라."

이 천사의 말을 들고 있던 마리아는 공손히 두 손을 마주 가슴에 얹고 두 눈을 감으며 "저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옵나이다."라고 하자, 가브리엘 천사는 홀연히 떠났습니다.

④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제 일대 황인 가이사 어거스터스가 온 천하에 명령을 내리어 호적(戶籍)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도 다비드왕의 자손이므로 자기가 사는 갈릴리의 나사렛 고을을 떠나 유대 지방의 다비드성(城) 안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 요셉의 아내가 될 마리아도 함께 호적을 하기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때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도 한참 전 주이었으므로 그곳에서 해산 날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든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다 찼었습니다.

⑤ 요셉과 마리아는 집들과 여관들을 모조리 찾아 보았으나 원망스럽게도 사람이 거처할 방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읍니다. 나중에 겨우 자리를 잡고 있게 된 곳이 어느 집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마굿간이었읍니다.

마리아는 맏 아들을 이 어둑컴컴한 마굿간에서 낳았읍니다. 마리아는 곧 아기를 강보로 싸서 눕힐 자리를 찾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없었읍니다. 나중에는 하는 수 없이 말구유 안의 풀 위에다 그 아기를 눕히었읍니다.

어둠에 깊게 묻힌 이 고요한 밤에 갓 난 아기가 마굿간의 말구유에서 평화롭게 잠이 들었을 때 아기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감사 기도를 하느님께 드리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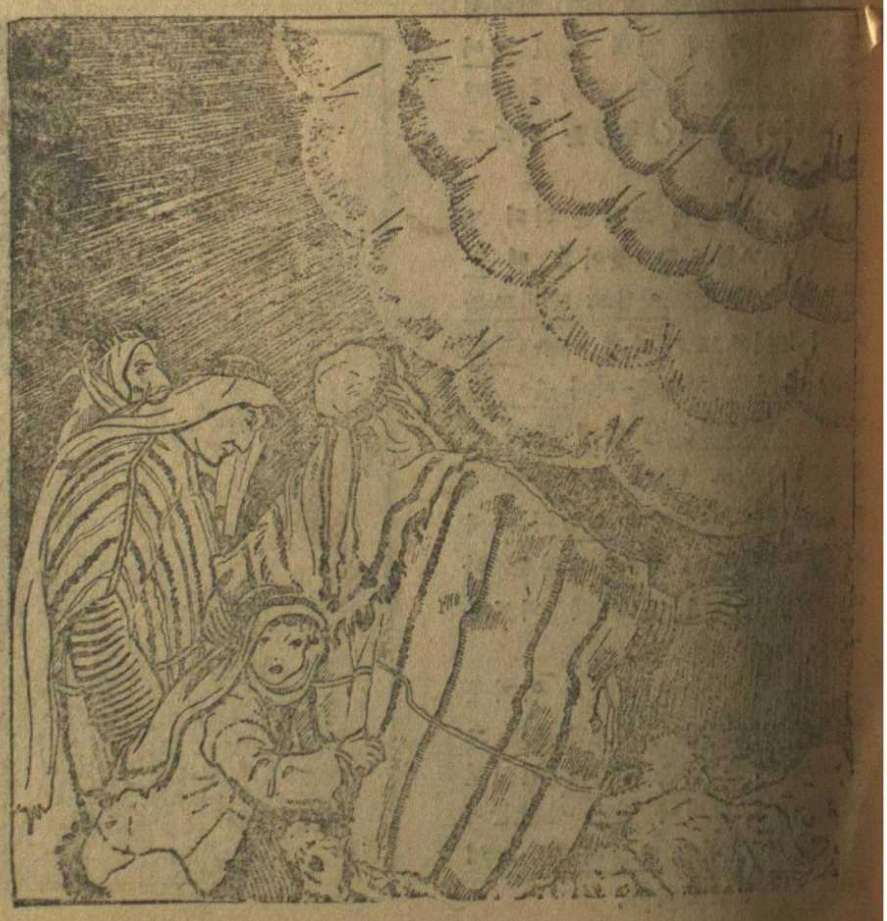
⑥ 이 때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에 양의 무리를 지키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하느님께서 보낸 천사가 홀연히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두 비추었읍니다.

이것을 본 목자들은 너무도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절절매고 있을 때 천사가 공중에서 일러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만민이 다 기뻐할 크게 거르고도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 왔나니라.

"오늘날 다비드성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主)시니라.

"너희들이 가면 한 아기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인 것을 보리니, 이것이 곧 한 표적이니라." 고 하였읍니다.



⑦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늘의 수많은 군사가 여러 천사와 같이 이 하느님을 찬송하여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이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안할찌어다." 라고 하였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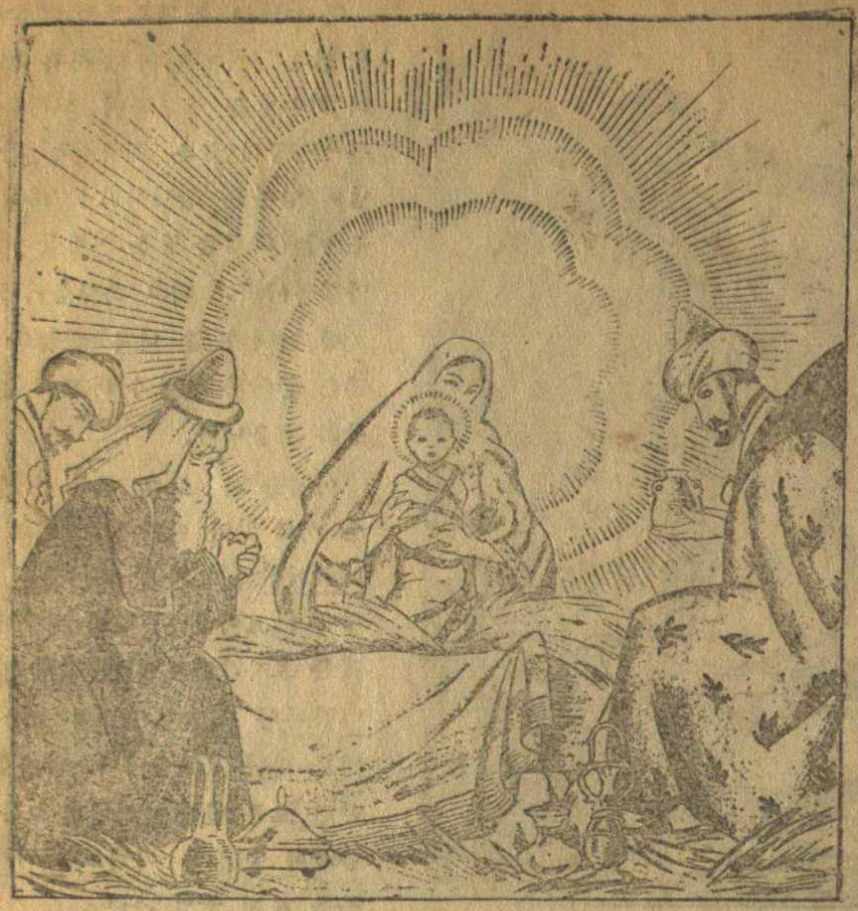
이 노래가 끝 나자 하늘의 수많은 군사와 천사가 바로 하늘로 올라 갔읍니다.

이것을 다 보고 들은 목자들은 서로 일러 말하기를 "이제 곧 베들레헴까지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라고 하며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만나 보았읍니다. 목자들은 당한 모든 일을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마리아도 마음 세겨 들었읍니다.

⑧ 예수께서 베들레헴이 탄생하실 때 이 유대 나라를 헤롯왕이 다스리었읍니다. 이 헤롯왕은 로마제왕 가이사 어거스터스가 유대 나라만을 다스리라고 왕을 시켜 준 사람입니다.

하루는 동방(東方)나라의 박사(博士) 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왕을 만나 보고 "우리는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별을 발견하고 지금 경배하러 왔읍니다."라고 말하였읍니다.

헤롯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답답해 하며 온 예루살렘도 모두 떠들석하였읍니다. 헤롯왕이 제사제장(지금의 대신과 같음)들과 서기관들을 불아 놓고 "대체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는지 알겠는가?"라고 물으니까 한 제사제장이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하였읍니다.



⑥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에언자가 일찌기 써 논 것을 보면 유대따 베들레헴아 너는 제일 적은 성이 아니로다. 왕이 네게서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기르리라고 하였읍니다."라고 말하였읍니다.

헤롯왕이 남 모르게 박사들을 불러서 그 이상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아기를 힘써 찾아 만나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경배 하리라."고 하였읍니다.

박사들이 길을 나서자 동방에서 보이던 별이 문득 나타나더니 앞으로 길을 인도하여 아기 나신 집 위에 그치었읍니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 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며 보배합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읍니다.

⑩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읍니다. 동방의 세박사가 똑 같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헤롯왕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읍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읍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헤롯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하니 아기 예수와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애급이라는 나라로 잠시 피하여, 내가 알리기까지 그 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였읍니다.

요셉은 곧 일어나서 그 밤으로 아기 예수와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곧 애급으로 길을 떠났읍니다.

식물와 포도가 많기로 유명한 애급의 나일강변에서 그들은 살았읍니다.

⑪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수많은 아기를 살해한 헤롯왕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애굽에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는 아기 예수와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지방으로 돌아가라 아기 예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던 사람이 죽었느니라."고 하였읍니다.

요셉은 곧 아기 예수와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지방으로 돌아와서 옛 고향인 갈릴리바다가 내다 보이는 나사렛성에서 살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나시기 오래 전에 벌써 선지자(예언자와 같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말하는 사람)가 미리 말하기를 "장차 오실 구주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리라."고 한 말이 그대로 맞은 것입니다.

⑫ 아기 예수는 점점 자라서 건강하고 지혜가 많아지게 되었읍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세 해가 될 때면 예루살렘의 성당으로 가는 것이 한 습관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열두살 때의 일입니다. 성당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예수의 부모는 하도 사람들이 많으므로 동네 사람들과 같이 오다가 의례히 다라 올 줄만 알았던 예수가 보이지 않아서 찾기 시작하였읍니다. 겨우 사흘만에야 잃었던 예수가 성당 안에서 여러 선생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그 선생들은 모두 예수의 지혜에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을 본 요셉과 마리아는 더 놀랐읍니다.

예수는 마리아에게 "왜 찾으셔요. 이 집은 제 집니다."라고 하였읍니다. (끝)

(지도) 문교부 교수 요목 제정 위원
문교부 교과서 편찬 위원
윤 태 영

문 제 (4) (시간 60분)

◎ 문제의 목표

찾아 내는 힘을 기르는 것으로, 여러가지 중에서 다만 한 가지만이 유독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있어, 그것을 알아 내는 것이다. 다른 한 선, 한 가지 일을 구별하여 결정을 짓는 힘을 시험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먼저 그 문제의 표준을 알아내야 할 것이다.

◎ 설 명

다음에 몇 가지 말이 있다. 그중에 다른 것과 전혀 성질이 틀린 것이 있다. 그것을 찾아서 그 말 밑에——선을 그을 것이다.

◎ 보 기

잡지, 신문, 책상, 책, 공책, 이 다섯 개 말 중에 읽을 것 또는 책이라는 점에서 모두 같으나, 다만 책상은 종류가 다르다. 그러므로, 책상 밑에——을 그으면 된다.

---

(1) 대한, 영국, 불란서, 미국, 시베리아.
(2) 인천, 수원, 서울, 개성, 해주.
(3) 환등, 부싯돌, 활동사진, 네온사인, 화경(探照鏡).
(4) 적인(赤燐), 산화(酸化)망강, 유리가루, 중(重)구름, 콜 (성냥갑의 약).
(5) 지구, 수성 (水星), 금성(金星), 화성(火星), 달별(衛星).
(6) 떠돌이별(行星), 별똥돌(隕石), 달별(衛星), 별똥별(流星).
(7) 밀물, 썰물, 강물. 사리, 조금.
(8) 쑥돌(花崗岩), 변쑥돌(片麻岩), 종석돌(玄武岩), 버릇돌(硯石), 모랫돌(砂岩).
(9) 뗏돌(세일), 흙돌(石炭岩), 점석(粘板岩), 바위돌(岩漿), 변쑥돌.
(10) 돌비눌(雲母), 절돌(長石), 숫돌, 차돌(石英).
(11) 부서진바위, 불에된바위, 물에된바위, 변해된바위.
(12) 돌소금 나는 나라…미국, 중국, 도이취란드, 우티 나라.
(13) 차돌, 흙돌, 모랫돌, 뗏돌.
(14) 화랑, 선인, 풍월주, 낭도, 관창(官昌).
(15) 신라 원광법사의 가르친 것. ① 효도로 부모를 섬기라. ② 믿음으로 친구를 사귀라. ③싸움에 물러가지 말라. ④ 살 놀라, ⑤ 짐승을 함부로 잡지 말라.
(16) 의연(義淵), 현광(玄光), 안홍(安弘), 성충(成忠), 지명(知明).
(17) 혜업(慧業), 현태(玄太), 현각(玄恪), 혜륜(慧倫), 우륵(于勒).

(문) 인사 주립니다. 양 끝은 활을 같이 차고, 가운데는 붓 같이 멥고, 마디가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 (서울 아현교 6의3 홍 창기)

(답) 지구, 그래서 모르면 우티가 살고 있는 망덩이.(최처 박사)

(문) 박사님 안녕하은지요? 여섯 형제가 있는데 맏형은 제일 웃방에 따로 모시지요. 맏형은 제급이 5요 나머지 5형제는 모두 제급이 1이랍니다. 그러니 5형제를 전부 합해야 맏형과 같이 된답니다. 그게 무얼까요? (서울 효제교 6의2 이 은환)

(답) 그게 여섯 형제도 있지만 요새는 다섯 형제가 새로 생긴 걸 모르나? 셈을 빨리하는 주판일세. (최처 박사)

(문) 박사님 처음뵙습니다. 박사님이 아무리 잘 안다치더라도 제 문제는 못 마치실걸요. 이 세

(18) 혜자(惠慈), 혜종(惠聰), 관특(觀勒), 담징(曇徵), 선신(善信).

(19) 원효(元曉), 원측(圓測), 설총(薛聰), 혜초(慧超), 의상(義湘).

(20) 강수(强首), 김대성(金大城), 최치원(崔致遠), 설총(薛聰), 김유신(金庾信).

(21) 임해전(臨海殿), 안압지(雁鴨池), 석굴암(石窟庵), 불국사(佛國寺), 상영총(雙楹塚).

(22) 의자왕, 은조왕, 동명성왕, 박혁거세, 왕건.

(23) 을지문덕, 강감찬, 김유신, 이순신, 최치원.

(24) 왕유, 최언위, 강감찬, 최충.

(25) 정서(鄭叙), 김 황원(金黃元), 정 지상(鄭知常), 김 부식(金富軾), 최치원.

(26) 낙랑, 변한, 현도, 진번, 임둔.

(27) 마한, 진한, 변한, 고려.

(28) 오이(烏伊), 마리(摩離), 협부(陝夫), 금와왕(金蛙王).

(29) 졸번천, 사로국, 하남우리성, 살수(薩水)

(30) 우문술(宇文述), 을지문덕(乙支文德), 우중문(于仲文), 내 호아(來護兒).

(31) 이 세민(李世民), 리상 현장(里相玄奬), 장엄(蔣嚴), 연 개소문(淵蓋蘇文).

(32) 계백(堦伯), 성충, 홍수, 소정방(蘇定方).

(33) 보장왕(寶藏王), 의자왕(義慈王), 경순왕(敬順王), 왕건(王建).

(34) 황룡사, 구층탑, 첨성대, 내량 법듕사.

(35) 인천(仁川), 서울, 부산(釜山), 군산(群山), 목포(木浦).

(36) 군산, 마산(馬山), 부산, 원산(元山), 금강산(金剛山).

(37) 경기도(京畿道), 강원도(江原道), 강화도(江華島), 경상남도(慶尙南道), 경상북도(慶尙北道).

(38) 서울, 와신론, 런던, 파리, 뉴우욕.

(39) 서울, 청주(淸州), 대구(大邱) 대전(大田), 춘천(春川), 부산(釜山).

(40) 경기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황해도.

(41) 이준, 안중근, 이완용(李完用),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42) 사자(獅子), 개, 돼지, 소, 고양이, 말.

(43) 편지, 엽서, 전신, 전화, 전차.

(44) 눈, 코, 입, 무릎, 귀.

(45) 거울, 비누, 연필, 칫솔, 수건.

(46) 6, 12, 20, 24, 27

(47) 0.5, 0.07, 0.09, 7.

(48) 8, 55, $\frac{9}{10}$, 73, 81.

(49) $\frac{4}{2}$, $\frac{50}{10}$, $\frac{50}{25}$, $\frac{1}{5}$, $\frac{1000}{500}$.

(50) $\begin{array}{r}6124\\-3729\end{array}$, $\begin{array}{r}8519\\-6124\end{array}$, $\begin{array}{r}10914\\-8519\end{array}$, $\begin{array}{r}11324\\-10914\end{array}$.

(51) 9)27, 33)99, 115)345, 50)200, 41)123

(52) 단단하다, 거칠다, 연하다, 반질반질하다, 달다.

(53) 두들기다, 때리다, 친다, 부신다, 어루만진다.

(54) 부르짖다, 외친다, 소리친다, 악쓴다, 노래한다.

(55) 민중(民衆), 국민(國民), 백성, 민족(民族), 계례, 지도자(指導者).

(56) 자손, 후진, 후배, 조상, 후생.

(57) 삼천리강산, 대한, 조선, 반도, 동방, 동양.

(58) 처량한소리, 구슬은소리, 쓰라린소리, 애원하는소리, 환호성.

(59) 처럼, 마치, 같이, 흡사, 바로.

(60) 높고 얕다, 얼숭덜숭, 뻐죽뻐죽, 조심조심, 꼬불꼬불.

계에 제일 큰 문이 하나 있읍니다. 그 문 이름은 무엇이겠읍니까? (홍제원 유년 주일 학교 중등반 정 대식)

(답) 흥, 그 문 이름은 말일쎄, 좀 걸으니 똑똑히 듣게. 척척 박사가 대답 못하는 질문. (척척 박사)

(문) 척척 박사, 초면일쎄. 나도 꽤 아는 척 했건만 내 손자 질문엔 질색이야. 이건 내 손자 질문일쎄. "눈이 눈에 들어가 눈물이 되었으니 눈물이냐 눈물이냐?" 왜 벌써부터 벌벌 떠나? 내 대신 대답좀 해주게 그려. (경북 안동 얼떨떨 박사)

(답) 이따위 김빠진 질문을하는 걸 보니 자네가 얼떨떨 박사는 제격일쎄. 그건 물을 거 없이 눈물이야. 허허 그래도 모르겠다면 "뱃속에서 뱃속 먹고 뱃속이 불편하니, 뱃속 탓인가? 뱃속 탓인가? 뱃속 탓인가?"이 걸 알아보면 자연 알게 될것일쎄. (척척 박사)

깔깔특집

겨울방학 웃음선물

대장군은 오성 대감

오성은 오성부원군([illegible]) 의 약칭(略稱) 이니 벼슬의 존호이며, 은 이름은 이 항복(李恒福) 이라 선조(宣祖…지금으로부터 사백 여년전) 때 사람으로 영상([illegible]…제일 높은 벼슬) 까지 지냈으며 임진왜난(王辰[illegible]) 을 막기에 애쓴 영신(名臣) 중의 한 사람이다.

1 오성과 대장장이

대여섯 살 때 일이다.

오성은 이웃에 있는 대장간에 곧잘 놀러갔었다.

대장일을 구경하다가 갈때는 의례 만들어 논 말편자를 한개씩 훔쳐 가지고 간다.

대장장이는 벌써부터 그 눈치를 채었으나, 양반집 아들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어느날——

대장장이는 오성이 올 때쯤 해서 일부러 뜨거운 편자를 오성이 집어가기 좋만한 자리에 던져 두었다.

이윽고 어슬렁어슬렁 오성이 놀러왔다. 편자가 눈에 띄었을제 오성은 은근히 기뻐하며 슬그머니 집었다.

"아윳 뜨거!"

오성은 속으로만 외치고 얼른 편자를 도루 놓고 나왔다. 데인 손바닥이 사뭇 화끈거린다.

오성의 꼴을 보고 대장장이는 몹시 만족해 하였지만, 영리한 오성도 대장장이의 짓인줄 짐작 하였다.

며칠 뒤 오성이 다시 놀러왔다.

오성의 손에는 잘 익은 살구가 서너개 들려 있었다.

대장장이는 일하다 말고 씽긋 웃으며 말을 건다.

"도련님 그 살구 참 맛 있어 뵈는데요. 나두 한개먹어 봤으면 좋겠다."

오성은 그 말을 듣고 시원스럽게 그중에 큰 살구 한개를 대장장이에게 주었다.

"이거 날 다 주시구, 참 기특하셔라."

대장장이는 살구를 입에 넣고 오짝 한입 깨물었다. 순간 대장장이의 얼굴은 울상으로 변하며

"으악 퇴퇴퇴!"

소리를 내어 입안의 것을 모두 뱉는다.

"고봐 남을 골탕책일랴면 고런 법이야."

오성은 손벽을 치며 웃는다.

오성은 먼젓번의 앙갚음을 하

어고 궁리한 끝에 살구를 곱게 반으로 갈라서 씨를 떼낸 다음, 속에 똥을 담아 감쪽같이 마춰 논것을 대경감이에게 준 것이었다.

2 오성과 대감

오성의집 울 안에는 큰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무성한 가지가 사면으로 뻗어 나갔다.

그중에 큰 가지가 이웃집 담넘어에까지 늘어져 있었다.

그 이웃집은 오성의 집보다 벼슬이 높은 대감이 살고 있었는데 늘어져 있는 가지의 감을 그집 하인들은 제것처럼 함부로 따 먹었다.

그것을 분하게 여기는 것은 식구중에 오성이었다.

어느 날 오성은 그 집으로 가서 대감을 찾았다.

하인들은 이상히 여기며 대감을 만나게 하였다.

대감 앞에 이르자 오성은 절을 수떡하고 나서, 대감이 앉아 있는 창문에다 잡담제하고 손을 불쑥 넣고 입을 열었다.

"대감님 이 손이 누구 손입니까?"

대감은 오성의 당돌한 행동을 의아히 바라보다가

"그 손이 네 손이지 누구 손이겠느냐?"

하고, 대답하니까 오성은 기다렸다는듯이

"그러면 저 감나무가 대감댁 것입니까?"

대감은 그제서야 오성이 찾아온 까닭을 깨닫고, 그 대담함과 슬기가 뛰어 난 것에 감탄하며 그뒤 부리는 하인들에게 감을 필대로 따 먹지 못하게 하였다.

3 오성과 장조(丈祖)

오성의 장조 (장인의 아버지)는지독한 구두쇠였고 장조모는 또한 샘이 많았다.

어느 해 장조가 황해도 감사(監司…지금의 도지사)를 지내고 오는 길에 좋은 떡을 여러 상자 사가지고 왔다.

보통 사람이라면 의례 일가친척간의 젊은 애들에게 한 자루씩 선사로 줘야 마땅할 것인데, 구두쇠인 장조는 시침을 떼고 다락에 깊이 넣어 두었던 것이다.

웃음 전람회 ①

너털 웃음

[illegible]

오성이 그 소문을 듣고 어느날 장조를 찾아갔으나 마침 집에 없었다.

"떡을 많이 가지구 오셨다는데 구경을 시켜 주십소."

오성은 장조모에게 졸라대었다. 장조모는 어찌는 수 없이 떡을 내보였다.

오성은 이것 저것 열어 보더니

"이 어른께서 해주가서 제일떡 좋기만 하시었네."

"어떻게 자네가 아나?"

장조모가 의아하여 묻는다.

"이거 보십소. 떡마다 좋기 좋아하시던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장조모가 떡을 들고 보니 과연 한입 궁월([illegible]月)이니 예월([illegible]月)이니 하는 공부 탓하고 할기 만한 흔적이 박혀 있었다.

샘 많은 장조모는 포함 운세를 이 나서

"이놈의 떡 죄다 내다 버려야지!"

하고 떡 상자를 집어 오는것을 오성은 얼른 막으며

"이렇 떠버릴 것이면 저를 주

십쇼. 젊은 애들에게 노나 주겠읍니다."

이런 피를 써서 오성은 떡을 통째로 가지고 갔다.

나중에 장조가 그 일을 알고

"에 그놈한테 묘하게 속았군."

4 오성과 임금

퍼 많은 오성을 골려 줄 생각에 임금은 어느 날 오성만 빼놓고 여러 신하들에게 내일 입시(入侍…출근)할적에 달걀 한개씩을 가지고 오라고 일렀다.

그 이튿날 임금은 시침을 딱떼고

"경들은 이 자리에서 모두 똑같이 생긴 물건을 내 놔야 한다. 만약 시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벌을 주겠다."

이 말이 떨어지자, 신하들은 일제히 달걀을 품안에서 꺼내 놓는다.

오성만 내놀 것이 없었다.

임금은 다른 것보다 오성의 당황하는 꼴을 보려고 했는데, 벌써 오성은 임금의 작란임을 깨닫고, 앞으로 나서면서 닭의 흉내를 내더니

"꼬꼬오 꼬꼬오"울었다.

그리고 나서

"저 달걀은 모두 제가 만든 것이 옳시다. 그러나 수탉이라 알은 낳진 못합니다."

이리하여 임금의 계획은 깨기고 말았다.

정수동(鄭壽銅)의 원 이름은 지윤(芝潤)이건만 사람들은 아명(兒名) 수동을 불러 수동 수동 한 것도 수동이가 벌지기 때문이다. 철종(哲宗)때 사람으로 고향은 서울이요 글은 많았으나 벼슬은 하지 못했다. 못한 것이 아니라 가문(家門)이 얕다 하여 벼슬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수동은 슬퍼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평생을 웃음과 풍자로 보낸 걸물(傑物)이다.

1 제돈 한푼쯤

수동은 어느 날 술이 얼근히 취해 가지고 어떤 대신의 집엘 들렀다.

마침 문간에서 행랑 어멈이 울고불고 야단이었다.

수동이 까닭을 물었더니

"선다님, 어찜 좋습니까? 애놈이 돈 한푼을 가지구 놀다가 삼켰으니 무슨 묘방이 없을 깝쇼?"

"그래 그게 뉘 돈이냐?"

"뉘 돈이라니요, 하두 졸라대길래 제가 한푼 줬읍죠."

"그럼 괜찮으이, 물이나 먹이구 배만 쓰다듬어 줘, 자네댁 대감은 남의 돈 수천량씩 삼켰어두 아무렇지 않은데 제돈 한푼쯤 삼킨게 무슨 탈이 되겠나!"

이것은 뇌물을 받아 먹은 대신을 들어 봐라 하고 비교운 말이다.

2 내 망건이라면

수동은 늘 다니는 대신의 집에서 하루를 묵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나니 망건이 행방 불명이다.

수동은 얼른 주인 대감의 망건을 집어서 머리에 쓰고 시침을 떼

웃음 전람회 ②
젠척 웃음

나두 말모래런 중학생야 아 그래 요까짓 문젤 못풀을 알구……에헴 어떠만 하나말야 으흐흐흐……

고 앉아 있었다.

주인 대감이 소세를 하여야 겠는데 망건이 없어졌다.

대감은 어서 찾아 놓라고 하인들을 달구쳤다. 하인들은 진땀을 흘리며 이집듯 찾다가 어떤 하인이 한 구석에서 헌 망건을 찾아냈다.

"이게 뉘 망건일구?"

수동이 그것을 보고

"어디 보세, 어 그게 바루 내게 로군. 그런데가 백혔으니 알 도리가 있었나."

하면서 대감의 망건을 끌러 주었다

하인이 기가 막혀서

"글쎄 어떠자구 대감 것을 쓰시구 천연 스럽게 앉아계십니까? 애가 닳어 찾는 걸 뻔히 보시면서."

"허어 이사람, 내 망건 같으면 자네 들이 그처럼 애써 찾아 주겠나?"

3 정 수동이가 갔아 와요

어떤 노재상의 집에 문객들이 많이 모이는데, 정 수동이가 얘기를 꺼내야 노대감이 좋아하였다.

하루는 어느 시골 친구가 정수동이를 은근히 찾아와 술대접을 하면서, 노대감의 비위를 좀 마춰야 할텐데 얘기 거리도 없고 말주변도 없으니 재미 있는 얘기를 알으켜 달라고 청했다.

"얘기라는 것은 일러 줬다구 되는게 아니니, 내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하고, 무슨 짬짜미를 하였다.

그런 뒤에 노대감댁에 여러 문객이 전과 같이 모였을제, 그 시골 친구가 먼저 입을 벌렸다.

"대감 오늘은 소인이 재미 있는 얘길 한마디 하겠읍니다."

"허 별일일세, 자네가 좋은 얘기를 다 헌다니! 그래 어디 해보게."

그 친구는 미닫이 안에 앉고 정 수동은 미닫이 밖에 앉아서 남몰래 귀띔을 하기 시작이다.

"옛날에 한놈이 있읍죠."

"옛날에 한놈이 있읍죠."

"만첩청산으루 들어 갑니다 그려."

"만첩청산으루 들어 갑니다 그려."

노대감은 연방 그래 소리를 낸다.

"백악 대호가 어흥하구 나옵니다."

"백악 대호가 어흥하구 나옵니다."

노 대감은 신이 나서

"그래서 어서하게."

시골 친구는 별안간 말문이 막혔는지 눈알만 굴리고 있다.

"아니 웨 말이 없나 호랑이가 잡어 먹었단 말인가?"

그 친구는 꼬만 풀이 죽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갔아와요."

"가다니 누가 갔단 말인가?"

"정 수동이가 갔아와요."

"으아 하하하."

노대감을 비롯해서 좌중은 그제서야 그 까닭을 알아채고 웃음판이 되었다.

그후 그 친구가 정 수동을 만나자

"여보시오, 그래 그런 법이 있오. 술 대접 까지 했는데 사람 망신을 그렇게 시키는 데가 어디있오."

하고 책망하니까, 수동은 태연히

웃음 전람회 ③

근질 웃음

아 이놈아! 게가 손을 넣지 마라 근지럽가 근지러워 아 글쎄 근지럽대두 고더석 참! 아서라 아서 호호호호……

웃음 전람회 ④

삼키는 웃음

저 저 선 몰라요 저제 제가 안 안 했어요 서서 선생님 분필갑에 개구리 넌 애를선 몰라요 킥 킴칼……

"여보게 그런 망신 않구 자네가 무슨수루 대감을 웃겨 보겠나."

4 무서운 것

역시 노대감 집에서, 어느 날 노대감이 모여 앉은 문객들을 향하여 입을 열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선게 뭐겠나?말들 해 보게."

한 문객이 얼른

"호랑이가 제일 무섭겠읍니다"

"소인 요량엔 도적놈이 제일 무섭습니다."

"뭐니 뭐니 해두 양반이 무섭지요."

제각기 한마디씩 하고 났으나 정 수동이만 말이 없다.

노대감은 궁금해서

"자네는 뭔인가?"

"세상에 무서운 건 호랑이 탄 양반 도적이올시다."

정 수동의 대답을 듣고 노대감의 얼굴빛은 푸르락누르락했다.

호랑이 겁질로 된 방석을 자기가 깔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5 내 입인줄 알고

어느 날 정 수동은 시골 친구의 집엘 놀러갔었다.

그 친구는 어찌 인색하였던지 방안이 깜깜해도 불을 켜 놓지않고 밥상을 들여왔다.

수동의 마음은 못마땅하였다.

그래서 수동은 뜨거운 밥을 크게 한숟갈 떠가지고 주인 입속에 다 퍼들어넣었다.

주인은 질겁을 해서

"여보게 이게 무슨 짓인가?"

"앗불사 하두 어둬서 그게 내 입인줄 알었지."

주인은 그제서야 불을 켜더라

그—

6 사(邪)가 붙은 문배

정 수동은 술이 취해서 밤 늦게 돌아가다가 순라군에게 붙기였다.

종지굽아 날 살려라 하고 갖을 목 털미에 건채 정 수동은 달린다. 뒬썩 숨이 턱에 다어 죽을지경이다.

마침 꼬부라진 골목이 눈에 띄어 허둥지둥 들어섰으나 공교롭게 막다른 골목이였다.

"이놈 게 있거라!"

순라군의 호통이 덜미에 떨어졌다.

순간 정 수동은 어느 집 대문 앞에 가서 뱃심좋게 두팔을 벌리고 버티고 섰다.

"네이놈, 날개가 돋혔으니 미상천 할테냐?땅두더지니 땅속에 숨을테냐? 이놈 꼼짝 말구 게 있거라, 도마위에 오른 고기다."

외치던서 순라군이 수동이의 앞으로 닥쳤다.그러나 수동은 태연히 서 있다.

순라군은 한번 방망이를 휘두르고 나서

"이런 흉칙스런 놈,게가 그렇게 숨어 섰음 누가 모를줄 알구,이놈아,두팔은 웨 벌리구 섰거나"

이때야 비로소 수동은 입을 열었다.

"나는 문배요."

"뭣이 문배?이놈아 문배두 말하더냐."

"오래되던 사가 붙어 그렇소."

"이런 뻔뻔스런놈,말이나 못구 이리 나오너라."

순라군은 손을 들어 정 수동의 옷소매를 잡어채였다.

그러니까 정 수동은

"찍"하고 소리를 냈다.

순라군은 의아하여

"그게 무슨 소리냐?"

"종이 찢어지는 소리요."

정 수동이 젓연스럽게 대답하니 순라군은 기가막혀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주) 문배(門牌)라는 것은 그때 통속으로 사람만하게 종이로 만들어서 문위에 써 붙여 액(厄) 막이를 하였다.

엉터리짓 잘하는 백 문선

백 문선(白文先)은 정 수동보다 훨씬 나중 사람이다. 역시 서울 태생으로 정 수동과 비슷하면서 잘지 않은 것은 정 수동은 좀 점잖았다면 백 문선은 좀 거칠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수동은 적어도 대감축에 가는 양반들과 벗을 했고 문선은 흔히 거리의 친달들과 놀았기 때문이다.

1 굉장한 포시(布施)

문선은 어느 날 친구들과 절 놀이를 갔었다. 그 절은 중수(重修)중으로 널리 포시(布施…기부금)를 걷고 있는 중이었다.

문선의 일행을 중들은 큰 시주(施主)나 만난듯이 은근히 환영하였다.

주지(住持)가 나타나서 포시장(布施帳)을 내밀며 간곡한 청을 하였다.

다른 친구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었으나 문선은 태연한 들기지로 포시장을 받아들고 본다.

양반 부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신자(信者)들의 포시금이 적혀 있었다. 최하가 몇량이요 대개 몇십량이었다.

문선은 서슴지 않고 붓을 들더니

"일천(壹阡)…"

의 두자까지 커다랗게 써는 다음 별안간 벌떡 일어 나서 뒤가 급하다고 변소로 갔다.

주지는 엄청나게 큰 포시를 받은 것이 흡족 하여 중들에게 한상 잘 차리도록 분부하였다.

문선은 오랫동안 변소에서 나오지 않다가 상이 나왔을 때쯤해서 자리에 나타났다.

문선의 일행은 진탕 먹었다.

상을 물리고 난 뒤, 주지는 다시 공손히 포시장을 내밀며 끝을 아물리기를 기다린다.

문선은 그제서야 생각난듯이 이를 쑤시면서 한손에 붓을 들었다.

"정성에 다과(多寡)가 있겠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저 처분만 바랄뿐입죠."

문선은 이윽고 일천 밑에 리분호(厘分毫)의 호자를 큼직 하게 써 넣었다.

옛날 돈으로 일천호는 즉 일전(一錢)이다.

2 웃겼다 성냈다

문선이 어느 날 친구들과 거리를 거닐고 있으더니까 한 젊은 아낙네가 대문간에 서 있었다.

친구 중의 한 사람이

"문선 여보게 저기 저 작씨를 웃겼다. 금방 성나게 할 수 있겠나? 그렇게만 하면 한턱냄세."

문선은 잠간 사방을 훑어 보다가

"그까짓 것 어디울 게 있나."

하고 장담하였다.

그 문 앞에는 개 한마리가 자고 있었다.

문선은 그 개 앞으로 가더니 꾸벅 절을 하며,

"형님, 안녕 합쇼."

하니까 아낙네는 그 물이 하도 우스워 입을 막고 웃었다.

문선은 시침을 딱 떼고 이번에는 아낙네에게 절을 하며

"형수(兄嫂)씨두 안녕 합쇼."

하였다.

아낙네는 고만 성이 나서

"별 미친녀석 다 봤네."

욕지거리를 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3 같은 풍속

문선은 먼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그 근처 절을 찾아 갔다.

중들은 초라한 문선을 없수히

웃음 전람회 ⑤

터지는 웃음

뭐? 잠뱅이 끈이 끊어져서 벌건 중둥이를 내논채 100메터 경주에 첫째를 했어? 이건 정말 신기록인데 오하 오하 오하……

웃음 전람회 ⑥

어리광 웃음

엄마아 나 말 잘 들을께—— 응 그리구 애기두 잘 데리구 놀께에 엄마 나 이뿌지이 나 군고구마줌…… 해애

보고 푸대접을 하였다.

그때 뒤미처 효사스럽게 차린 손님이 찾아와 하룻밤 자기를 청한다.

중들은 그 손님에게는 만반으로 대접이 극진하였다.

문선은 괘씸히 생각하여 중을 불러 따진다.

"여보게들 절에서두 사람 낫가리서 대접인가?"

한 중이 대답한다.

"손님께서 아직 이절 풍속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대접하는 것이 안하는 것이요, 안하는 것이 하는 것이올시다."

문선은 중의 대답이 끝나기가 바쁘게 중의 판판한 대가리를 막 갈긴다.

중은 얼결에 얻어 맞고 골이나서 절님 이게 무슨짓이냐고 힐난이다.

문선은 태연히

"자네들도 아직 모르는소리…우리 등에 풍속은 따리는 것이 안따리는 것이요, 안따리는 것이 따리는 것이라 네알었나?"

4 돌절구 맛

어느 날 백문선과 친하게 지내는 벼슬아치 집에서 하인이 심부름을 왔다.

하인은 문선을 일수히 보고,문에 들어서자 마자 완만한 말거지로

"우리댁 나으리가 좀 보시자우."

하고 편지를 불쑥 내민다.

문선은 괫심하게 여겼으나 내색지 않고, 편지를 보면서

"돌절구를 빌리라시는데, 그것을 어따 쓰시더누."

문선은 의아해 하는 하인을 끌고 뒤결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큰 돌절구를 하인에게 지워 보냈다.

한창 무더운 여름 날, 하인은 돌절구를 지고 가느라고 죽을 고생이다.

집에 당도 하였다.

"아니 그게 웬가?"

"나으리께서 빌리라구 편지에 하셨다는 뎁쇼."

주인은 문선의 작란인줄 짐작했고, 하인으로 그러서야 골탕을 먹은 것을 알고 분해 하였다.

5 어떱쇼! 여러분

문선은 어느 날 동네 남정군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는데를 기웃하였다.

한 친구가 엽전 한꾸러미를 장대 끝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고대두 세운체 그렇다고 발판을 쓰지도 말고 떼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제 것이 된다는 것이다.

문선은 대뜸 내가 한다고 나서더니 장대를 풀고 우물로 갔다.

문선은 장대를 우물 속에 넣으며

"자들 보게 고대두 세운체 발판도 없이 …어떱쇼."

하였을젠 장대 끝의 엽전 꾸러미는 문선의 손에 들려 있었다.

6 황금새 한마리

어느 날 밤이다.

문선은 길에서 뒤를 보다가 순라군에게 들키게 되었다.

문선은 얼른 일어나 갓으로 통을 덮고 무엇을 찾는 시늉을 했다.

"이놈 게서 뭘 하느냐?"

순라군이 대들었다.

"새 한쌍에서 한마리를 놓쳐서 찾고 있읍니다."

"무슨 새란 말이냐?"

"금똥 누는 황금새랍니다. 나라님께 진상할 것을 놓쳐서 걱정입니다. 숫놈이 이 갓 속에 들어 있으니 죄송 하지만 잠깐 봐 줍쇼. 암놈을 찾아야겠읍니다."

"뭣이?금똥 누는 새라? 정말 화수분 새로구나.그걸 무슨 수로 찾느냐?"

"비비조죠 훠어이하고 부르면 가까이 옵니다."

"비비조죠 훠어이, 비비조죠 훠어이."

연방 부르며 이리저리 찾는 척하다가 문선은 고만 도망쳐 버렸다.

순라군은 암만 기다려도 오지 않으므로 황금새나 집어갈 욕심에 조심조심 갓 밑으로 손을 넣어 새를 덤썩 움켜 쥐었다. 그러나 손에는 뭉클하는 것만 잡히었다.

제천구리가 정 만서

전 수동([illegible])과 성은 같으나 사람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나 행동이 비슷했다. 아니 정 수동보다는 오히려 거친 점이 맨 문선과 같다. 대구 태생으로 그러지 오래지 않은 인물이다. 불행히 무당의 이들이라 재주는 있었어도 써 먹을데가 없어서 한세상을 잦궂게 보내려만 했다.

1 죽어봐야 안다

정 만서가 병이 더쳐서 거진 죽게 되었다.

평소에 만서로 해서 웃고 지내던 친구들이 병 위문을 왔다.

"여보게 좀 어떤가?"

"글쎄 첫죽엄이 돼서 죽어 봐야 알겠네."

2 통채로 빤 빨래

만서는 친구와 술타령을 하다가 밤이 늦었다.

숨어 숨어 길을 걷다가 기어히 순라군을 만나게 되어 급한 김에

남의 집 담 위로 올라가 엎드렸다.

순라군은 어둠 속에서 허연 것을 보고

"저게 뭘가?"

"네에, 빨래올시다".

"빨래라니,웬 빨래가그러냐?"

"네에, 하두 급해서 통채로 빨어 그렸읍니다."

2 사람 아닌 양반

한 친구가 만서에게 점잖은 샌님 한분을 소개 하기를

"이 어른은 참 지체가 좋은 양반이시네."

그 말을 듣자 만서는 대뜸

"그놈의 자식 사람 아니로군 그래."

샌님은 펄쩍 뛰며

"아아니 그게 어디 당헌 소리요."

"어째서 양반이 사람이란 말이요?"

"양반이 어째 사람이아니요?"

"이런 제에기 양반이 한번 세상에 태어나면 애기, 도련님, 서방님, 나리, 영감, 대감…허다말지 언제 사람 되실 날이있

웃음 전람회 ⑦

못난이 웃음

헤에 뭐 누가 너보구 그랬니. …글쎄 그런게 아니래두, 네가 그렇게 자꾸 울면 내 마음이 답답하당께…참 내, 헤에……

오?"

3 닭을 울게 하는 법

이웃 친구가 만서를 찾아 왔다.

"우리집 수탉은 통 울지를 않으니 좋은 모방이 없겠오?"

"좋은 수가 있오. 이걸 수탉자는 둥어리 속에다 넣어 두고 빔새 기다려 보시오."

만서는 종이 조각에다 이놈 애비가 죽었다—이렇게 써서 주었다.

이웃 친구는 그것이 무슨 예방인줄 믿고 그대로 했으나 새벽이 됐건만 닭은 울지 않았다.

그 이튿날 만서가 이웃 친구를 찾아 가서

"간밤에 웁디까?"

"여보 울긴 뭐가 울우, 이웃간에 그렇게 사람을 속여야 옳단 말이요?"

책망을 들은 만서는

"뭐 어째, 이런 불효 막칙한 놈의 닭 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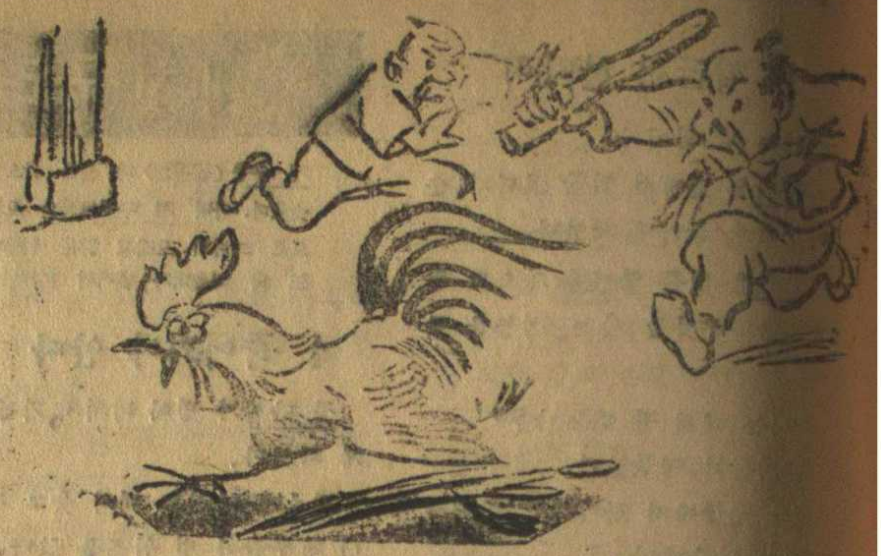
하고 팔을 걷더니 굵은 장작 가비를 집어 들고 수탉을 쫓아 간다.

"애비 에미가 죽었는데도 울지 않는 놈을 살려 두어, 온 이런 강상지변이 있나!"

만서는 외치면서 기어히 닭을 때려 죽였다.

주인이 죽어 자빠진 닭을 기가 막힌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만서는 시침 뚝 따고

"여보 인젠 막걸리나 걸터 오. 조상술이나 먹읍시다."



4 공짜 복생선국

만서는 친구 몇을 이끌고 술집으로 들어갔다.

마침 안주에 복생선국이 나왔다.

웬만큼 먹다가 만서가 낮은 목소리로

"여보게들 내 거동대루만 따러 허면 이 복생선국은 꽁짤제."

이렇게 말한 다음, 만서는 주모 들어보란듯이

"어어 졸려 별일인데."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따라서

"왜 이리 졸릴까."

"아 졸려."

하고, 몸들을 비비 꼰다.

술집 주인은 깜짝 놀래어

"어머니나 큰일 났네, 어서 이 초를 좀 잡수시오들."

얼마만에 거짓 정신이 든듯 만서가

"국 값 술 값이 모두 얼마요?"

"국 값이 다 뭡니까 매죽엄이 날 뻔했는데—"

5 해소 고치는 법

동네 글방에 제법 거만스런 훈장(訓丈)이 하나 있었다. 늘 보기 좋게 난 삼각수를 쓰다듬고 있는 꼴이 만서의 눈엔 거슬렸다.

훈장은 심한 해소장이었다.

어느날 만서는 기침을 하고 있는 훈장을 보고,

"선생님 웨 해소를 안 고치십니까?"

"누가 고치기가 싫어서 그러우 별별 약을 다 써두 안듣는구려."

"좋은 비방이 있읍니다. 수염을 깎으면 금방 해소가 떨어진답니다."

훈장은 그 말을 곧이 듣고 가위로 그 보기 좋게 난 삼각수를 몽탕 깎아 버렸다. 그러나 해소는 여전하다.

웃음 전람회 ⑧
호걸 웃음

내가 책 나서서 한놈을 거꾸로 들고 내흔들었더니 고만 여라문놈들이 똥줄이 빠지게 도망가던 꼴이라니 핫핫하하……

만서는 수염 없는 훈장을 바라다 보는 것이 흡족하였다.

"좀 어떠시오? 내 요량엔 기침이 한결 젊어 보이는데."

6 빽빽한 장사

만서는 늘 다니는 술집엘 들렸다.

"한잔 주우."

"네."

주모가 돌아 앉은 새에, 안주로 셀어 노려는 통채 삶어 논 암퇘지의 양쪽 유통을 널름 도려서 먹어 버렸다.

만서가 계배할 때 술값만 치르니까 주모가 못마땅해서

"돼지 유통은 다 잘라 자시구, 술값만 내시니 웬셈이에요."

만서는 거침 없이 돌아서면서

"그 장수 무던히 빽빽 허군. 허구헌날 암퇘지만 잡나—오늘은 수돼지 잡은셈만 치게나그려."

7 헤엄을 쳐야

원래 만서의 집안은 가난하였다.

만서가 저녁상을 받고 보니 멀건 죽 한 그릇이다.

"또 죽이야. 이런 제에기 서발 막대도 거칠게 없구나."

숟갈로 휘휘 저으며 하는 소리였다.

만서는 숟갈을 놓고 별안간 일어 나더니 우통을 훌훌 벗는다.

마누라가 의아해서

"아니, 죽이 시덥지 않어 내동댕일 칠작 정이요?"

만서는 죽 그릇을 향하여 뛰어드는 시늉을 내며

"헤엄이나 쳐야 낟알이나마 구경을 해보지."

8 꼭 닮았다

만서는 친구 하나와 길가에 한가롭게 앉아 있을제 마침 그 앞으로 송낙을 쓴 어린 여승(女僧)이 지나간다.

친구는 심심했던 판이라

"자네 저 여승 한번 울리면 한잔 삼세."

"그까짓 것 어렵지 않지."

하더니, 벌떡 일어나 여승에게로 달려가서

"허어 영낙 없는걸. 아무리 봐두 영낙없어."

송낙을 벗기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다가 만서는 고만 주저앉아 설어워 한다.

"저를 어찌 아시고 이렇게 설게 우십니까? 흐흐흐."

여승도 목메어 운다.

만서는 그제서야 들어난 무르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참 영낙 없이 꼭 닮었단 말이야, 어찌면 이렇게 같을까?"

9 없어만 주면

시골 길을 가는데 만서는 배가 고팠다. 마침 논두렁에 모여앉아서 참을 먹는 농군들이 눈에 띄였다. 만서는 일부러, 가까이 지나면서 논 가운데 큰 바위가 박혀 있는 것을 보고

"갈길이 과히 바쁘지 않었으면 그 바위를 내가 저 내련만…"

하고 중얼거렸더니, 농군들이 길을 막고 만서를 붙들어 앉히고 술에 밥에 허벅지게 대접을 하며

"그저 제발 부조하시는 셈 치시구 힘 좀 써 줍쇼."

하고, 간청이다.

만서는 배 불리 먹고나서

"인제 먹은 값을 해 볼까."

하며 옷을 벗고 논 가운데로 성큼 들어 섰다.

만서는 뻑짝 말른 두팔로 바위를 어두만지면서

"자아 보구들만 있지 말구 이리와서 이바위를 내 등에 얹여 놔요. 져 내긴 내가 헐테니—"

웃음 전람회 ⑨

쓴 웃음

체에 그녀의 어린 놈이 아주 맹랑해 내가 꽃병 깨뜨린걸 이렇게 일구 든 안주면 죄아버지게 일른대……체에

의뭉스런 봉이·김 선달

이름을 모르는 대신 봉이(鳳伊) 김선달(金先達)이면 다 아는 인물. 고향도 평양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평양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다. 통재미는 별로 없으나 의뭉스럽고 엉터리여서 속여먹고 사람을 속히는 수작이 매우 우습다.

1 닭이 봉이되다

서울에 올라온 김 선달은 어느 날 거리로 구경을 나갔다. 그 날은 마침 임금이 거동하는 날이었다.

김선달은 수표다리를 지내다가 그 아래 닭장이 서있는 것을 보고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로 성큼내려 섰다.

"여보시오, 다 이게 무슨 날즘생이요? 허울이 아주 보기 좋구만요."

닭 장수는 어이가 없어서 김선달의 아래 위를 훑어보니 촌뜨기요 숙맥이 분명하다.

닭장수는 허는 양을 보더고

"예, 이건 봉이란 새요."

"봉이라구요 봉이란 새를 얘기두만 들었었는데 정말 신기한 새로군. 거 팔거요?"

"아무렴 팔다마다."

웃음 전람회 ⑩

간릉 웃음

……그러엄 내가 제일이지. 헤헤. 그까짓 뭐니뭐니 떠드는 것을 다 내 말 한 마디면 꼼짝 못한다 그렇지? 헤헤 헤헤.

"얼마에 팔라우?"

"닷양만 내시오."

"봉 한마리에 엣양, 참 싸구나."

김 선달은 봉 아닌 닭 한마리를 사 들고 큰 행길로 나왔다.

임금의 행차가 막 지내더할때 김 선달은 두 손으로 수탉을 부등켜 안고 행차로 뛰어 들더 하였다.

"어떤 놈이야! 감히 어디루 뛰어 들어!"

"예—소인은 피양(평양) 사는 놈이온데 상감님께 봉 한마리를 진상하고저 합니다. 봉이란 날즘생은 상서(祥瑞)로운 것인줄 알기에 이렇게 가지고 왔읍니다."

"에끼 이 미친놈 같으니라구, 그게 닭이지 봉이야 어서 썩 물러서라."

이때 이런 소동이 상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선전관(宣傳官)으로 부터 대강 얘기를 듣고 자세한 것을 조사하라고 분부하였다.

선전관이 김 선달을 친히 불러서

"너 이걸 봉이래니 웬소리냐?"

"그런게 아니올시다. 조금전에 수표 다리를 지내더니까, 그 곳 장사가 이것은 봉이라 하기에 샀읍니다."

"옹 그래 어느놈인지 날 촌사람이라구 속인 모양이로구나."

그길로 닭 장수가 불들려왔다.

"네 이놈 바른대루 아뢰어라, 이 수탉을 봉이라구 속여 팔았지?"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팔았읍니다."

이번에는 김 선달을 향하여

"너 이것을 얼마에 샀느냐?"

"삽백량에 샀읍니다."

닭 장수는 펄쩍 뛰면서

"천만엡쇼. 엣냥에 팔었읍니다."

"아니올시다. 엣냥짜리 봉이라면 제가 곧이 듣고 샀겠읍니까?"

선전관은 김 선달의 말을 신용하고

"네 이놈 당장 삼백량 물어 주어야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포도청 신세를 지리라."

닭 장수는 찍 소리 못하고 삼백량을 곱다랗게 빼앗겼다.

2 대동강(大東江)을 팔다

서울 부자 하나가 많은 사들이기에 바빴다.

김 선달보고도 땅이 난데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청을 했다.

그런 부탁을 받고 김 선달은

"그까짓 땅은 자구 사서 뭘 하시오. 논 얼마지기면 일년에 고작 많이 나야 삼십석 도조를 받는다면 그 반 밖에 더되우?"

"그러나 다른 장사에 비하면 실패가 적으니 튼튼하지 않소."

"왜요 나는 대동강 하나만 갖고도 걱정 없읍디다."

"대동강을 갖다니요?"

"우리 피양 대동강 말씀이요."

"피양 대동강이 노형거란 말이요?"

서울 부자는 김 선달을 미치지나 않았나 하고 유심히 바라다 본다.

"노형이 나를 미친놈으루 여기는 모양이요만 가보면 알께요. 나두 대동강 덕에 과히 옹색하지 않게 지내는 터인즉 안팎 노자를 댈테니 핑게삼어 금수강산 구경이나 해 보시더우?"

정색하여 말하는 김 선달을 서울 부자는 꼭 믿고 그와함께 평양으로 내려갔다.

평양에 당도하자 김 선달은 밤중으로 평양의 물장수를 전부 돈을 주어 매수해 놓고, 내일 아침에 이리이리하자고 짜미를 해놓았다.

김 선달은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서울 부자를 데리고 대동강으로 나갔다.

줄대어 오는 물장수마다 김 선달을 보자

"선다님 평안히 주무셨읍니까?"

인사를 하며 돈을 즉 물값을 내놓는다.

얼마 안가서 벌써 돈이 수북하게 쌓인다. 서울 부자는 그 광경을 보고 욕심이 났다. 매일 저렇게 번다면…대동강이야 마를 까닭이 없겠고…생각 할수록 거위가 치민다.

서울 부자는 김 선달의 눈치만 살피다가,

"김선달 말하기 장히 어렵소만 대동강을 내게 파시오."

"아 여보 대동강을 팔면 나는 어떻게 먹구 살란 말이요?"

"돈을 얼마든지 내리다."

김 선달은못이기는체 하며

"우리끼리니 얘기지, 내가 대동강만 믿구 남의 돈을 굉장히 많이 썼으그려. 갚을랴니 큰돈이

웃음 전람회 ⑪

덩단 웃우

헤헤헤헤 왜들 그렇게 웃어대니? 응. 요것들아, 헤헤, 내 대머리가 배꼽쳤대서 그러느냐 괜들 참 우스운 놈들일세 헤헤……

구료, 아무리 화수분을 가졌지만단번에 한구녀 들어 붓기가 힘드는 구료."

"그래 갚을 돈이 얼마나되오?"

"사천량이나 되지요."

"자아, 빚이 사천량이라니 육천량 낼께 파시오."

"예 여보 그까짓 이천량 냉겨가지구 뭘하겠오?"

"그럼 여보슈, 팔천량에 헙시다."

"에라 그럼 그래 봅시다."

김 선달은 못 이기는체 하고 드디어 임자 없는 대동강을 팔천량이란 큰돈을 받고 팔아 먹었다.

그 이튿날 이른 아침 서울 부자가 대동강가에 나가 자리를 잡고 앉았으나 웬일인지 물 장수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서울 부자는 참다 못해서 물장수 하나를 보고

"여보 오늘부터 이강 임자가 갈렸으니 물값 이리 내구 가우."

"뭣이 물값?강 임자?이 사람이 미쳤네."

그제서야 서울 부자는 김 선달에게 속은줄 알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었다.

우스운 옛 시조 ①

일신이 사자하니 물것 겨워 못견딜세.

핏겨 같은 가랑니, 보리알 같은 수등니, 주린이, 갓깐이, 잔벼룩, 굵은벼룩, 강벼룩, 왜벼룩, 기는 놈, 뛰는 놈, 비파 같은 빈대, 재끼 사령 같은 등에아비, 감마귀, 삼의야기, 세바퀴, 누른 바퀴, 바그미, 거저리, 부리 뾰죽한 모기, 다리 기다란 모기, 야원모기, 살찐 모기, 그리마, 뾰로기, 주야로 빈 때 없이 물거니 쏘거니 빨거니 뜯거니 심한 당비리에서어려왜라.

그 중 차마 못견딜손 유월 복더위에 쉬파린가 하노라.

이 정보 (영종 매 분)

배꼽 빼는 중국 서 문장

풍자가와 익살군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다. 서 문장(徐文長)은 지금으로 부터 사백여년전 맹(明) 나라때 학자(學者)였다. 글은 많았으나 벼슬을 얻지 못한 것은 우리 정수동과 비슷하면서 그의 기행(奇行)은 백 문선에 가까웁다.

1 둥그렇게 모여서

문장이 재시(才士)라는 소문을 듣고 어떤 친구들이 찾아와서 문장을 요리집으로 모시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선생은 언변이 좋으셔서 누가 뭣을 묻든 즉석에서 대꾸하신다 하니 오늘 저희들과 내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선생께서 만약 둥그렇게 모여서, 서로 연(蓮)해, 수(數)많게, 그것은 아무래도 어렵다…라는 이상 네마디의 말을 얘기 가운데 사용하되 무리가 없으면 이 요리 값은 저희들이 물고 그렇지 못하면 선생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잘 알았오이다. 어서 두분 먼저 해 보시우."

한 친구가 먼저

"별들은 둥그렇게 모여서 보기에는 서로 연해 있는듯 배열되어 수 많게 뵈나 별 하나를 집으려면 그것은 아무래도 어렵다."

또 한 친구는

"연(蓮) 이파리는 둥그렇게 모여서 연근(蓮根)의 실은 서로 연해 있는듯 수 많게 뵈나 그것으로써 옷감을 만들고저 한다면 그것은 아무래두 어렵다."

문장 차례가 되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둥그렇게 모여서 앉아 있으면 어쩐지 서로 연해 있는듯 하고 식탁위에는 수 많게 음식이 놓여 있어서 당신네들이 나를 암만 박아지 씌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어렵다."

2 도리어 망신

어느날 아침에 문장이 대변을 보고 있으려니까 마침 길로 개똥을 줏으 다니는러 애가 지나 간다.

문장은 장난이 하고 싶어서

"얘 이놈아 너 하루 종일 줏은 개똥이면 배가 불르냐?"

하니까 애는 금방 대거리 하기를

"선생님 요새 개는 어떻게 약은지 똥을 변소에서 누는군요."

슬그머니 욕을 먹고도 문장은 할 말이 없었다.

3 똥을 먹이다

문장은 배추 흥정을 한다.

장수는 한통에 십원을 달랬으면 문장은 반값으로 깎았다.

장수는 너무 깎는데 골이 나서

"배추를 사지 말구 똥을 사서 자시는게 낫지."

말을 함부로 하였다.

문장은 괘씸히 여겼으나 꾹 참고 장수 요구대로 배추를 샀다. 장수는 배추를 날르다가 문득 선반 위에 떡 두개를 널름 집어 먹었다.

문장이 그 꼴을 눈결에 보고 발을 구르고 야단이다.

"이거 큰일났군. 그떡엔 비상이 들어 있는데, 쥐를 잡으려고 얹어 논 것을—"

배추 장수는 그 말을 듣고 금방 얼굴이 파래가지고 어쩔줄 모른다.

"어떻거면 좋습니까?"

"의사를 불른대두 시간이 늦구 비상독은 똥이래야 풀린다니 똥을 좀 먹는 수 밖에 없지."

장수는 어쨌던목숨만 건지려고 똥을 퍼먹었다.

그꼴을 본 문장은

"여보게 결국 누가 똥을 자셨나."

4 아주 젊어지게

어떤 군수 한사람이 삼각수로 벌어 나린 자기의 흰 수염을 늘 쓰다듬으며 자랑하고 있었다.

문장은 그 꼴을 볼적마다 생각한 바가 있었다.

어느 날 문장은 군수를 보고

"제 집에 흰 수염을 점께 물들이는 약이 있읍니다. 한번 써 보실까요?"

군수는 그 말을 듣고 좋아하며 흠디 젊어 뵈려고 그 이튿날 사람을 문장의 집으로 약을 가질러 보냈다.

문장은 일부러 집을 나가 없었고 집안 사람이 선반 위에 약병을 내 주었다.

그 약은 생짜 옻이었다.

그런줄 모르고 군수는 흰 수염에다 흠뻑 칠하였다.

이윽고 옻이 말르니까 살과 수염이 사뭇 옥죄어 들었다.

문장은 시침을 딱 떼고 군수를 찾아가서 거짓 놀랜 빛으로

"제가 없는 새,집안 사람이 모르고 딴 약을 보냈군요. 이거 안 됐읍니다."

"내 어쩐지 약이 이상허더라니."

군수는 쓴 입맛을 다신다.

"이렇게 옥죄어드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할 수 있읍니까.아주 더 젊어 뵈시게 깎어 버리시죠."

군수는 하는수 없이 문장의 말대로 그 좋은 삼각수를 깎고야 말았다.

5 뽕따는 색시와

어느날 문장은 말을 타고 먼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뽕 따는 색시를 만나 수작을 걸었다.

"아가씨,당신 뽕잎을 몇천몇백장이나 땄읍니까?"

하고 조롱 하니까 영리해 뵈는 색시는 곧

"아저씨 탄 말은 몇천 몇백 걸음이나 걸어왔읍니까?"

응수했다.

문장은 다시 입에 침을 한 입 물고

"아가씨 내가 침을 뱉겠오,삼키겠오?"

하니까 이번에는 색시가 바지 끈을 푸는척하더니

"아저씨 내가 지금 대변을 보려는지 소변을 보려는지 아시겠읍니까?"

자기 입이 그런데 비교된 것이 창피하여 문장은 더 수작하지 못하고 말을 몰았다.

6 손 버릇

동네에 입 버릇 사나운 사람이 하나 있었다.

누구 얘기를 하던 놈짜를 놓는 것이 일수였다.

문장은 그 사람을 한번 혼을 내려고 벌써부터 별렀다.

문장은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나서 먼저 말을 걸었다.

"여보 이 서방은 어째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오."

"아, 그 놈이요? 천하의 못된 놈인데."

"그런데 여보 내 욕두 누가 뒷구녁으로 헌다는데."

그 사람은 문장을 향하여

"당신 같은 놈을 누가…"

문장은 벌떡 일어서며 그 사람의 뺨을 보기 좋게 두어대 갈겼다.

"웨 나를 치는 거요?"

"이놈아 웨 나한테 욕이냐!"

"그것은 우리 시골 말 버릇인

우스운 옛 시조 ②

바둑 걸쇠 같이 얽은 놈아 제발 비자.네게 물가에만 오지 마라.

눈 큰 준치, 허리 긴 갈치,두루쳐 메기, 친친 가물치, 문어의 아들 낙지, 넙치의 딸 가자미, 배부른 올창이, 공치, 겨레 많은 곤장이, 고독한 배암장어, 집채 같은 고래와, 바늘 같은 송사리, 눈긴 농게,입 작은 병어가 그물만 여겨 풀풀 뛰어 달아나는데 열없이 생긴 오징어 뚱개는데 그놈의 손자 꼴뚜기 애쓰는데 바소 같은 말거머리와, 귀영자 같은 장구아비 아무란 줄도 모르고 놀기만 한다.

아마도 너 곧 곁에 섰으면 고기 못잡아 대사로다.

김 수장 (숙종 때 분)

웃음 전람회 ⑫

열적은 웃음

……선 청가할 줄 모른대두요. 에에 참 절랑 빼놓구 시키시라니께 자꾸 그러세요. ……에이 참 큰밀 났네…… 히이

줄 모루?"

"너두 몰라, 뺨을 갈긴 것은 우리 시골 손 버릇인줄……"

7 모자를 집다가

동트기 전에 문장은 길을 걷다가 발 앞에 모자 같은 것이 있으므로 손으로 집었더니 말똥이었다.

마침 뒤에서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문장은 딴 생각이 들어서

"난 뭐라구, 아침 개시에 모자 같은 걸 집어서 뭣에 쓴담."

하고 앞을 서니까 뒤에 온 행인이

"어디 어떻게 생긴 모잔지 구경이나 헐까?"

중얼대며 덤썩 집었다. 말똥이 물컹…문장은 돌아다 보며 재미있게 웃는다.

8 차를 주면서도

문장은 자기 집에 찾아 오는 손님들에게도 의례 장난을 하였다.

밥상을 물리자 손님들에게 뜨거운 차를 내었다.

문장이 먼저 맛을 보더니

"이렇게 식은 차를 내보냈담."

그 말을 듣고 손님들은 정말 식은 차인줄 알고 벌컥 마셨다.

웬걸 손님들은 불을 마신듯 뜨거운 차물에 혀와 입안을 온통 데었건만 체면에 뱉지도 못하고 쩔쩔매었다.

문장은 그 꼴을 보고 속으로 좋아한다.

9 난장이의 모자

문장이 사는 동네에 왕(王)서방이라는 난장이가 살고 있었다.

키는 석자도 못되는데 나이는 서른살을 넘었다.

문장은 곧잘 이 난장이를 놀렸다.

어느 날 동네에 구경이 나서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난장이 왕서방은 사람 틈에 끼어서 목을 늘이고 발돋음을 해서 구경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을게 문장이 뒤에서 그꼴을 보다가 다가가서 왕 서방의 모자를 집어 들더니 사뭇 자랑을 한다.

"야 이것 봐라 모자 하나 얻었다 재수 있는 데."

하고 외치니까 왕 서방은 문장을 흘겨본다.

문장은 그제서야

"난 누가 땅에 떨어뜨린건줄 알았더니 왕 서방모자로군."

그밖의 몇 가지

1 범과 호적(胡笛)장어

옛날 어떤 호적장이가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바위 밑에서 자게 되었다.

범이 사람내를 맡고 내려 왔다.

범은 자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 법이어서 내에 가서 꼬리에 물을 추겨다가 연방 호적장이의 얼굴에다 뿌렸다.

호적장이가 얼마를 자다가 눈을 떠보니 얼굴이 척척하다. 범의 꼬리가 보인다. 호적장이는 가슴이 선뜻했으나 침착하게 범을 물리칠 연구를 하였다.

범이 다시 와서 꽁무니를 들이대고 꼬리를 흔든다. 호적장이는 이때다하고 호적을 거꾸로 잡고 푹 내밀었다.

호적이 정통으로 범의 똥구멍에 박혔다. 범은 놀래어 어흥 소리를 치며 내뛴다.

내 뛸 때 호적 소리가 났다.

뿡—뿡—뿡……범은 힘을 줄수록 소리는 더 크게 났다.

뿡뿡뿡뿡…범은 그소리에 미칠

지경이다. 뒤만 돌아다 보고 뛰어 가다가 범은 마침내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

2 백지 두 권

임 형수(林亨秀)란 사람은 명종(明宗) 때 사람으로 제주목사(濟州牧使)까지 지낸 장난군이었다.

벼슬하기전 얘기다. 노자 한푼 없이 나주(羅州)본집에서 서울로 과거를 보러 올라오게 되었다.

주막에 들자 형수는 미리 주막 주인에게 백지 두권을 준때니 밥 두끼를 해내겠느냐고 다짐을받고 묵었다.

그 당시에는 백지를 돈 대신 쓸 수가 있었다.

그 이튿날 아침 형수는 조반을 먹고난 후, 백지 한장으로 두건(頭巾… 머리에 쓰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다가 주인에게 주고 주막을 떠나려 하니까 주인이 어리둥절해서 백지 두권(二卷)을 내라고 한다.

형수는 점잖 노해 가지고

"여보 주인 백지 두건(頭巾)을 주지않었오, 웨 또 내라우."

하고 도리어 책망을 했다.

3 이중탕(理中湯)이중탕

형수가 제주 목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

사람들이 쳇 벌미로 토하고 어지럽뜨리고 야단이다.

"아이구 하누님!"

"아이구 어머니!"

"아이구 부처님!"

"아이구 아버지!"

하고 떠드는데 그중에 무당은

"아나명아! 아나명아!"

하고 중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을 외우는데 형수는 가만히 있다가

"이중탕 이중탕!"하고 불렀다.

얼마만에 풍랑이 갖은 뒤 옆에 있던 사람이 형수에게 이중탕의 뜻을 물었다.

"내야 무슨 헐 소리가 있던가. 배가 아픈데는 이중탕(理中湯… 배이픈데 먹는 한약)이 제일이길래 이중탕 이중탕하였지."

4 국(國)자면 고만

영정간(英正間)의 사람으로 이문원(李文源)이란 사람이있었다. 어려서 부터 오성 비슷한 장난꾸러기였다.

공부를 안하고 장난만 치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종이 여러장을 내주며 여기다 빈틈 없이 글씨를 써 놓라고 했다.

그러나 문원은 조금도 저정하는 빛이 없이 종일 놀다가 종이를 펴놓고 나라국자 한자씩을 커다랗게 써 놓았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고 어이가 없어서

"글씨를 써 놓랬더니 겨우 나라국자 한자씩만 써 놨으니 웬일이야, 매좀 맞어야겠다."

"나라국자 한자면 그속에 없는 것이 없이 다 들어 갈텐데 웬 그러십니까?"

문원의 대답이 기특해서 아버지는 용서를 했다한다.

5 불기 맞을 기차

처음으로 생긴 기차를 타보려 남대문 정거장에 나간 대감은 마침 속탈이 나서 뒷간에서 장죽을 뻗치고 느러지게 판을 차리는데 하인이 뛰어와서

"빨리 나오십시오. 차 떠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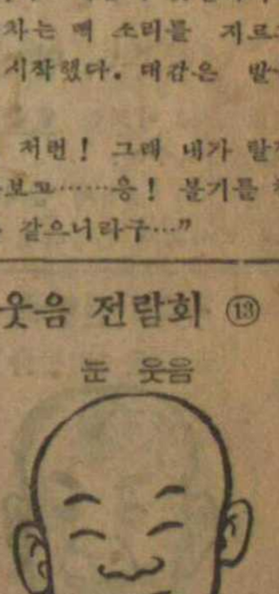
"응? 좀 기다리라고 해라."

그러나 대감이 뒷간에서 나설 때 기차는 뻑 소리를 지르고 달리기 시작했다. 대감은 발을 구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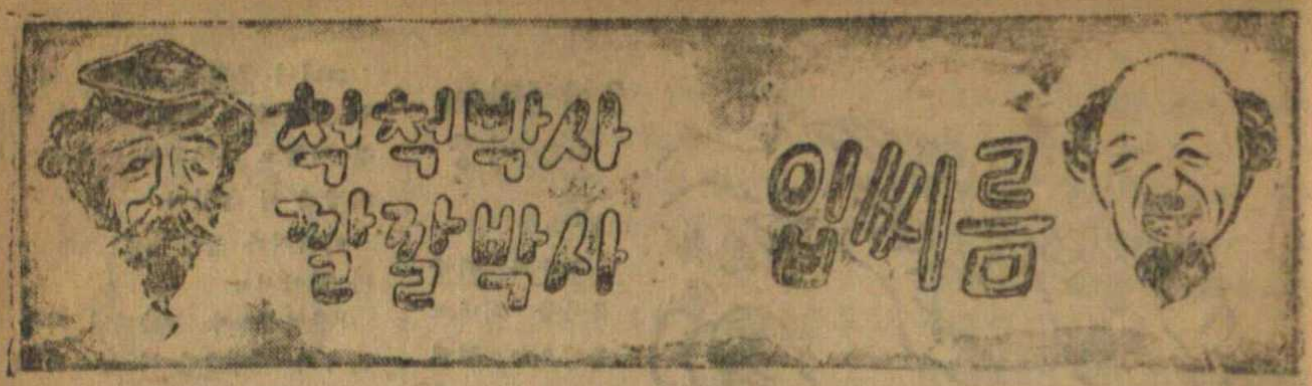
"원 저런! 그래 내가 탈걸 몰라보고……응! 불기를 칠 기차 같으니라구…"

웃음 전람회 ⑬

눈 웃음



자연 공연이 나만 보면 시까슬러. 지 못간들이에 좋 묻은 것은 것좀 봐. 정말 우스워 죽겠네. 호호호호.


척척박사
깔깔박사
입씨름

머리말

"소학생"잡지에서 섣달치 73호에는 깔깔웃음 특집을 한다는 말을 기자선생에게 듣고서 나는 꼭 척척박사와 깔깔박사 두 분을 모시어 보겠다고 생각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척척박사의 꾀주머니와 깔깔박사의 웃음보따리를 한 자리에 풀어놓으면 이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없을 것 같기에, 나는 두 분이 꼭 나와 줍시사고 졸랐던 것입니다.

처음에 척척박사께서는 병랄을 하고 잘 나오지 않으시더다가 "어려운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였읍니다"고 전갈을 했더니, "엉? 어려운 문제?"하고, 무슨 큰 일거리나 생긴 듯이 벌떡 일어나시어 (그러니까 병랄은 좀 수상합니다) 나오시였고, 깔깔박사도 "나는 웃음 거리를 독자가 가져 오면 골라 뽑는 일 밖에 없는데 나가 무엇하느냐." 하시고 도무지 일어 나질 않으셨읍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애독자들이 웃음 대회를 열었으니 나오셔서 심사를 해 주세요."하고 전갈을 했더니 간신히 나와 주셨읍니다. 어른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줄은 알면서, 오직 독자 여러분을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하여 내딴은 모략을 좀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나오실 분들이 아니랍니다.

자아 어느날 편집실 옆에 있는 응접실에 두 분이 뜻하지 않게 맞닥드렸읍니다. 두 분의 입씨름은 마침내 벌어진 것이였읍니다.(씨동이)

인사부터 말썽

(척척박사) 이것참 깔깔박사 오래간만이구려.

(깔깔박사) "소학생"잡지를 통해서 박사께서 안녕하신 것은 잘

알고 있었소마는 그런데 신색이 좀 전만 못하니 어디 편찮으셨소?

(척척박사) 나야 늘 영양부족이지요. 나는 원래 어려운 문제가 많을수록 영양이 좋아지는 것인데, 은요새 들어오는 문제가 쉬우니, 영양부족도 걸릴만 하지요.

(깔깔박사) 박사의 심정을 넉넉히 짐작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머리가 자꾸 빠지시니 얼마나 싸늘하실까요. 감기 드시기 꼭 알맞군요.

(척척박사) 아니지요. 나는 가을이며는 머리가 많이 빠지구 봄에는 다시 몇 개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깔깔박사) 마치 나뭇잎과 같만 말씀인가요?

(척척박사) 그런게 아니라, 겨울에 머리가 많이 빠지면 그만큼

웃음 전람회 ⑭

코 웃음 (비웃음)

……해볼래면 해보라지. 내가 거뜬하게 해 치웠대서 저두 하면 뭘줄 알구. 쿵 어림없지 어림없어. 흥……

햇볕을 더 많이 쪼이게 되니까 따뜻하다는 말이죠. 그러 깔깔박사의 대머리는 어떻습니까.

(깔깔박사) 예, 나는 오히려 여름에 머리가 뜨겁니다.

(척척박사) 그것은 무슨 까닭인

가요?

(깔깔박사) 여름에 시원하라구요.

(척척박사) 햇볕이 더 쪼이면 그만큼 더 뜨거울 것이 아닙니까?

(깔깔박사) 예, 그 걱정은 없읍니다. 땀이 나도 곧 햇볕에 말라버리지요.

(척척박사) 하하하하…… 그러면 그 수염은 왜 자꾸 길어만지십니까?

(깔깔박사) 겨울에 뜻뜻하라구요. 그런데 척척박사께서 내게 물으신 경우가 좀 틀립니다. 하하하하……

(척척박사) 나는 요즈음, 사람에게 왜 손가락이 열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읍니다. 그랬더니 장갑을 끼우기 위하여 그런 것을 알았읍니다.

(깔깔박사) 나도 그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비는 왜 하늘에서 내릴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일 땅에서 솟는다면 우산을 받을 수 없는 때문입니다.

(척척박사) 하하하하. 그러면 내가 문제 하나 낼까요? 새 두마리가 지붕에 앉았읍니다. 그중의 한 마리를 총으로 쏘아 떨어뜨렸읍니다. 지붕에 몇 마리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깔깔박사) 한 마리도 없읍니다.

(척척박사) 왜요?

(깔깔박사) 총 소리에 놀라 날아가버렸으니까요.

(척척박사) 그런데 사실은 한 마리 남았답니다.

(깔깔박사) 어째 그렇니까?

(척척박사) 총에 맞지 않은 새는 귀머거리였답니다.

(깔깔박사) 하하하하. 그러면 척척박사님, 내가 한 마디 물겠읍니다.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꼭 같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까닭입니까?

(척척박사) 예, 난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어디 박사께서 풀어보십시오.

(깔깔박사) 하하하하. 척척박사께서 못 푸시면 독자 앞에서 망신하실터이니까 모르시면서도 아시는체 하십니다그려.

(척척박사) 온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럼 내가 풀지요. 자세히 들으십시오. 반쯤 사는 것은 반쯤 죽은 것입니다. 즉 ½삶=½죽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 쪽의 ½을 다 없애기로 하면 삶=죽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똑 같지요.

(깔깔박사) 하하하하. 참 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척척박사) 또 어려운 문제 없읍니까?

(깔깔박사) 박사 앞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봄 눈 녹 듯이 술술 풀리니 어디 시끌리 물을 수가 있어야지요.

(척척박사) 에헴!

수수께끼 푸는 열쇠

(깔깔박사) "소학생"에 들어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그렇게 척척 풀으시는지 오늘은 그 비밀은 좀 털어 놓아 주십시요.

(척척박사) 허어 그렇게 내 비밀을 물추어는 다음부터 내 신용이 떨어지지 않소? 아마 아무리나. 어린 소학생들을 상대로 내가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그다지 자랑이 못 되니, 이 기회에 비밀이라기보다 푸는 열쇠를 공

개하리다.

(깔깔박사) 어서 말씀하시오.

(척척박사) 원래 수수께끼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읍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수수께끼. 다음은 대답을 뒤바꾸어 묻는 것. 세째는 시체 수수께끼라는 것인데 말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는 것. 대개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소학생" 애독자

들이 머리를 쥐어짜서 보내는 수수께끼를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척척 대답하는 것은, 무어 내 머리가 좋다거나 그야말로 박사가 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가 세상에 돌아다니는 수수께끼를 많이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대개 독자가 보내는 수수께끼는 내가 아는 범위 안의 문제니까요.

(깔깔박사) 은 경손의 말씀로……

(척척박사) 이제 그럼 수수께끼 푸는 법을 소개하겠읍니다. 물론 이것은 깔깔박사님 들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애독자들에게 들리는 것이니 오해 마십시오.

(깔깔박사) 그런 염려 마시고 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척척박사) 그럼 깔깔박사님께서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해 주십시오. 묵 넘어 골짜기 무엇입니까?

(깔깔박사) 목구멍에 침 넘어가는 것을 말한 것.

(척척박사) 강은 강인데 못 건너가는 것은?

(깔깔박사) 요강.

(척척박사) 아래로 먹고 위로 뱉는 건?

(깔깔박사) 대패.

(척척박사) 고만. 이런 것들은 다 첫째, 즉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수수께끼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도 서슴지 않고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깎을 수록 커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깔깔박사) 구멍.

(척척박사) 훔칠 수록 더러워지

는 것은?

(깔깔박사) 걸레.

(척척박사) 쓸 때 안 쓰고, 안 쓸 때 쓰는 것은?

(깔깔박사) 붓이나 만년필의 주껑입니다.

(척척박사)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꺼낸 세 가지 문제가 곧 대답을 뒤바꾸어 묻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깎을 수록 커진다며는, 가령 연필을 깎을 때에는 보통 깎이는 연필을 얼른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편 닳아지는 것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닳아지는고 하면, 연필에서 나온 나무부스러기가 닳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걸레의 경우에도 훔칠수록 마루나 방이 깨끗하고, 반대로 걸레는 더

우스운 민요

통노래

(1)

통물집 통도령님이
통감을 끼고
통영원 댁으로
통학중이었다
게을통을 내어
불통을 하므로
담배통으로
대갈통을 얻어 맞고
울통불통하여
골이 통통 났다
절구통 뒤에 가 있다가
물통을 뒤어 쓰고
숨통이 막히어
복통증이 생겼다지 (서울)

(2)

신통 방통
노방통 금부통
장구통 어우 홀림통
깽깽이통 원산 고불통

더워지는 것인데, 그러면 왜 걸레를 얼른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보통 걸레질을 할 때에 마루바닥이나 방바닥에 주의가 가는 것이요, 걸레에는 관심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걸레라는 것이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수수께끼가 되는 것입니다.

(깔깔박사) 그럴 듯하군요.

(척척박사) 버릴수록 많아지는 것은 쓰레기요, 먹을수록 홀쭉해지는 것은 쌀자루요,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거지요.

(깔깔박사) 그럼 나중번의, 말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는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척척박사) 예, 하긴 이놈이 퍽 재미있고 우스운 것입니다. 가령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 보십시오, 총을 놓을 때에 왜 한쪽 눈을 감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깔깔박사) 예, 그것은 만약에 두 눈을 다 감는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척척박사) 옳지요. 그러면, 급행열차에서 뛰어내렸는데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니 어쩐 까닭입니까?

(깔깔박사) 예, 그 급행열차가 섰을 때에 뛰어내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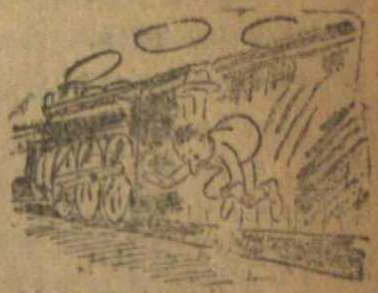
(척척박사) 맞았읍니다. 끝으로 또 하나, 지붕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어서, 처음에는 동쪽을 바라보더니, 다음엔 서쪽을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깔깔박사) 예, 그것은 한꺼번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척척박사) 참 잘 맞추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류의 수수께끼를 풀어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이든 문제가 나오면 얼른 그 문제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박사께서 풀으신 총의 문제라든지 급행열차의 문제라든지, 고양이의 문제가, 푸는 사람에게는 무슨 중대한 뜻이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아주 싱겁고 간단한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말의 농간이나 속임수의 수수께끼지요.

(깔깔박사) 나도 일떨김에 풀긴 했지만, 참 교모하게 해석하십니다.

(척척박사) 뭔요. 세상의 수수께



끼가 허다하지마는 대개는 위의 세 가지 줄거리를 가지고 응용한 것입니다. 나도 독자들한테서 들어오는 문제를 풀 때에, 이 세 가지 그물을 펼쳐 놓으면 대개는 어디든지 한 군데 걸리던군요.

(깔깔박사) 그렇지만 정말 모르시면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시지오?

(척척박사) 실례의 말씀 마십시오.

(깔깔박사) 하하하하. 아닙니다. 농담을 했읍니다.

꽁지따기

(척척박사) 자아, 이번엔 우리"소

웃집 오줌통 아랫집 똥통
우리집 절구통 술집 뜨물통
장님 북통 돼지 오줌통
수비대 나발통 얽은 놈의 쌍통
목수 먹통 못 생긴 밥통
아기엄마 젖통 주정군 술통
못된놈 심통 설은 사정 애통
이통 저통
우리 누나 시집 갈 때 국수통
(양주)

방구 타령

시아버지 방구는 호령 방구
시어머니 방구는 요망 방구
서방님 방구는 부끄럼방구
새악씨 방구는 도둑 방구
머슴 방구는 대포 방구 (선주)

먹 고

장 먹고 장가 가고
시금 먹고 시집 가고
다래 먹고 달려가고
머루 먹고 멀리 가자 (평양)

나무 타령

영감 천지 감나무

학생"애독자를 위하여 "풍지 따기"나 하나 하고 물러갑시다.

(깔깔박사) 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던지께 척척받으십시오. "소학생"은 유익해.

(척척박사) 유익한건 발명.

(깔깔박사) 발명이던 새것.

(척척박사) 새것은 뉴우스.

(깔깔박사) 뉴우스면 라디오.

(척척박사) 라디오는 전파.

(깔깔박사) 전파는 빠르지.

(척척박사) 빠르면 세월.

(깔깔박사) 세월은 한 없어.

(척척박사) 한 없는 건 "소학생" 애독자라지.

(깔깔박사)
(척척박사) } 아하하하.

(여동이) 두 분 박사님, 매우 수고하셨읍니다.

웃음 전람회 ⑯

간들 웃음

……아니, 그래 대추씨만한 신랑이 첫날밤에 뒤간에 빠졌어? 아이구 배 앞어 배꼽 빠지겠다. 깔깔 깔깔……

지난달치 수학장난 해답

(1) 1=0 이 문제는 그림 (가)의 정방형을 세 쪽으로 나눌 때 그은 길쯤이 맞모금(對角線)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에서 1cm를 잘라내면 ㄷ에서 ㄱ이 떨어져 나간 자리가 1cm보다 조금 더 길어진 것에 흘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림 (나)의 가로는 8cm+1cm가 아니라 9,142857…cm인 것입니다.

(2) 이상한 덧셈 세 사람과 이 장난을 할 때는 먼저 쓴 사람의 수 맨윗자리에 2를 더 쓰고 제일 아랫자리에서 2를 빼낸 수를 쓰면 됩니다. (영순이가 쓴 45789를 245787로쓴것 같이) 그리고 그다음에 쓰는 수가 무엇이 돈처 더해서 9가 되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기수가 쓴 28245가 99999가되도록 71754를 쓴 것 같이) 넷하고 할적에는 첫머리에 3을 더 쓰고 끝자리에서 3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들기 위한

소년 상식

3,000 문답집

지난번 나와서 전국 소학생에게 절찬을 받고, 또 학교칙, 학부형적에서 칭찬을 많이 받던 "소년 상식 1,000 문답집"의 실로 3급이나 충실한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보통 상식도 늘뿐만 아니라, 과거 중학교 입학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모조리 모아 정리하였고, 장차 내년도에 나오기 쉬운 문제 1,000가지와 그 정확한 대답이 붙었으니, 이보다 더 귀한 참고서는 없읍니다.

여러분은 중학교 입학시험을 너무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지금까지의 시험문제 나온 것을 살피어 보면, 모두 국민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아니면, 아주간단한 상식에서 나온 것을 알겠읍니다. 다만 어떻게 그 많은 문제를 정리하여 머리에 넣어 두느냐에 있읍니다.

글벗집 엮음. 아협 발행. 값 450원

심리 절반 오리나무
방구 뀌는 뽕나무
꿩의 사촌 닥나무
이혼 지나 백양나무
서울 가는 배나무
스무 햇재 스무나무
낮 무섭다 밤나무
앵두리져 앵두나무
거짓말 못해 참나무
한자 두자 잣나무
주사 형님 사과나무
기운 없다 피나무
다섯 동강 오동나무
동지 섣달 사시나무 (휴천)

가랫골집 영감

가랫골집 영감이 가래를 내고
도랑골집 영감이 도랑을 치고
가젯골집 영감이 가재를 잡고
불땟골집 영감이 군불을 때고
화롯골집 영감이 화로를 내고
불담골집 영감이 불을 담고
노랑골집 영감이 노랑게 굽고
답삭골집 영감이 답삭 먹으니
부능골집 영감이 불집 불집
정잣골집 영감이 정장 정장
마솟골집 영감이 마소서 (삼수)

우리나라의 이민(移民)은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나?

민영환(閔泳煥)선생

조 용 만

요새 신문에 가끔 브라질로 이민을 보내느니, 알젠친으로 이민을 시키느니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민이란 것은 우리 나라 사람을 딴 나라로 옮아가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유우럽각국에서 이민들의 떼가 모여서 이루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새도 자꾸 각국에서 이민들이 모여들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는 대체 이민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또 이리로 제일 먼저 갔으며, 누가 이민을 제일 먼저 시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민영환(閔泳煥)선생은 충신으로만 유명하실 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이민을 먼저 시작한 어른으로서도, 널리 알려져야할 선각자이십니다. 선생은 1898년에 당시 제정(帝政) 노서아의 수도 피터스브르그에서 열린 노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戴冠式)에 참례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유우럽각국과 미국을 시찰하고 왔었읍니다. 이렇게 문명한 모든 나라를 시찰하고 돌아오자, 남들은 모두 타국으로 멀리 나가서 강사를 한다든지, 그밖에 다른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아들이는데, 우리 나라 백성만은 그냥 제 나라 속에 들어박히서 싸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하여, 크게 외국 무역(貿易)과, 해외 이민을 장려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이 일을 맡아볼 기관으로 유민원(殖民院)이란 것을 설치하고, 그 총재(總裁)로 민 영환선생이 취임하셨읍니다.

그때 마침 미국사람에 매셜버란 분이 있어서, 역시 민 영환선생과 같은 생각을 가져가지고, 개발 회사(開發會社)란 것을 조직하였읍니다. 이 회사는 조선 사람이 코딱지만한 땅 속에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살 것이 아니라, 널리 개화한 세계를 보고 배워서 와야하겠는데, 그러려면 우선 외국으로 이민도 시켜야하고, 무역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회사의 본점(本店)을 인천(仁川)에 두고, 지점을 서울에 두어가지고, 우선 하와이로 우리 나라 사람을 보내기로 되었읍니다. 하와이는 기후가 일년내 따뜻하여 춥지 않고 사탕이라든지 그 밖에 나는 산물이 퍽 많아서, 이곳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정부의 유민원과 매셜버의 개발 회사가 서로 협력하여 가지고 1901년 겨울에 4백명의 이민을 하와이로 보내게 되었읍니다. 이들은 주로 하와이에 가서 사탕 농사를 할 사람들이었읍니다.

당시로 말하면 우리 나라는 외국이 무엇인지 모르고, 제 나라 속에서 그저 농사나 지어가지고 먹고 살면 더이라, 외국으로 가는 것을 오랑캐 나라로 팔려 가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나 정부의 선전이 좋은 성과를 나타내어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400명이 모였읍니다. 그래 그 해 동짓달에 제물포(濟物浦)항구, 지금의 인천 항구에서 미국 화륜선(火輪船)을 타고 출발하는데, 항구에서 울음바다가 될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인지 다행히도 모두들 싹싹하게 웃는 낯으로 고국을 출발하여서 민 영환선생을 비롯한 정부 각 대신들과 매셜버씨도 지극히 안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 까닭인고하니, 그 이민들은 순전히 농사군들이 아니라,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가고 싶으나, 갈 길이 없어서 못가던 젊은 사람들이 농사군행세를 하고, 나선 사람이 퍽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시다. 이 처음 이민의 인솔자는 지금 하와이에서 우리 나라 사람으로 큰 부호의 이름을 듣는 안(安)모라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가 처음 발을 붙이던 광경인데, 그 뒤로도 1년에 몇 번씩 이민이 하와이와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이들이 오늘날 하와이와 미국에서 터를 잡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름없는 별들. 4

정 인 택

정현웅 그림

제3장 뜻하지 않았던 일

(1)

"아아아아!"

"사람 살리우!"

"이놈아, 놔, 놓지 못해?"

"비켜라, 비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이런 아우성소리들이 들려오는 것만 같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눈앞이 대낮 같이 밝아지는 것만 같아, 희봉이는 다시 두려움에 찬 목소리와 표정으로,

"으악!"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뛰쳐 일어나려 하였다.

제 소리에 놀라, 희봉이는 번쩍 눈을 떴다. 그리고는 얼빠진 사람 같이,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안개나 낀 듯 눈앞이 뿌오얀게 아무 것도 보이지를 않는다.

순간, 희봉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까의 그 소동, 혼란이었다.

고무신 신은 발, 구두 신은 발, 수 없는 발, 발들이 다시 눈 앞에서 얼쩐거린다. 그 틈 틈에 꼭 짓밟혀 죽을 것만 같아, 희봉이는 얼결에 외마딧소리를 지르며 두 팔로 머리를 얼싸안으려 했으나,

"아아아아!"

팔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았다. 아니, 그 뿐 아니라, 발끝에서 어깨까지, 전신이 찌르르 제리고 아파서 견딜 수 없었다.

"아이구구…"

희봉이는 다시 눈을 감고, 앓는 소리를 하며 떠 없이 아지를 늘어뜨렸다.

…여기가 어딜까? 어째서 내가 여기 와 누어 있게 되었을까?

아프고, 경황 없는 중에도 얼른 희봉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이 의문이었다.

"애야, 정신 차렸니?"

머리맡에서 여자 목소리가 났다. 희봉이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어, 다시 한 번 눈을 뜨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 보았다.

낯 선은 얼굴들이었다. 셋, 넷,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낯 선 얼굴들을 똑똑히 보았을 때,

…살았구나!

영리한 희봉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직도 머릿속이 텅 빈 것 같고, 몸을 가눌 수 없이 전신이 쑤셨으나, 그 성난 발길에 채어 죽지 않은 것만은 천행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 어른들이 나를 살려 주었나 봐!

희봉이는 겨우 거기까지 생각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정말 몸을 일으키려 하는데,

"애야, 아직 가만히 누워 있어라!" 하면서 한 여자의 손이 지긋이 희봉이 어깨를 누르며,

"애야, 너이 집이 어디지?"

상냥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천천히 물어두 되지 않어? 아직 너무애기 시키지 말어요."

그것을 가로막는 남자는 이 집 주인인상 싶었다. 희봉이는 누운채 가만히 그리로 시선을 돌렸다. 별안간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때 난데없이 웬 소년 하나가 후닥닥 뛰어 들어오더니,

"응, 희봉이가… 너 웬일이냐?"

놀란 듯이 소리쳤다. 같은 반에서 배우는 창수였다.

"넌 어디 갔다 인제 오는 거냐? 집안 사람들 걱정될 생각 못해?"

창수 아버지는 이렇게 꾸짖었으나,

"너 아는 아이냐? 한 반이냐?"

그것이 더 반갑다는 듯이 창수 어머니는 희봉이와 창수를 번갈아 쳐다보며 신기한 듯이 묻는 것이다.

(2)

아직도 동네 소란은 완전히 진정되지를 않았다.

임시구호소로 변한, 이 동네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병원을 중심으로, 오라가락,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끊일 새 없었고, 뒷수습을 하느라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청년단원들의 왕래도 심상하지 않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운봉이는 핼쑥한 얼굴로 마루 끝에가 걸터앉아,

"그 깍정이가 어디 갔어?"

뇌까려 보는 것이나, 마음 속의 불안은 감출 길이 없어, 저으기 초조한 것이다.

희봉이가 가 있을만한 곳은 알아 볼 데로 알아 보았고, 찾아 볼 데로 찾아 보았다. 그러나, 희봉이 간 곳은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도 단념하지를 못하고, 어수선한 동네 안을 샅샅이 뒤지며 다니시는 모양이다.

아무도 없는 텅 비인 집 안에 혼자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자꾸 불안하고 무섭고 하여, 운봉이는 후우 한숨을 내쉬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 때였다.

"여기냐?"

"네에."

"아무두 안계신가 보구나!"

이런 말소리가 들리며 소년을 앞세운 낯 서른 어른이 선뜻 뜰 안으로 들어섰다.

앞에 선 아이는 창수였다. 그 다음에 창수 아버지, 그리고 창수 아버지 등에는…

"희봉아!"

운봉이는 두 손을 벌리고 창수 아버지 앞으로 달려들었다.

창수 아버지 등에 업혀 있는 아이는, 뜻 밖에도 희봉이었던 것이다.

"희봉아, 너 어디 가 있었니?"

반갑기도 했고, 분하기도 했다. 운봉이는 까닭 모를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너가 운봉이냐?"

"네."

지난 달까지의 대강 이야기

서울에 붙어 있으면서도 하나 시골티가 나는 문밖에 자라는 운봉이, 종호, 태진이, 갑수, 옥순이, 희봉이……어느 날 이 마을의 국민 학교에서 영화를 돌리게 되었는데 종호, 태진이, 운봉이가 앉은 자리에 따라온 희봉이를 그 오라비 운봉이가 어른비 가서 구경하라고 떼밀려서 희봉이는 뾰로통해가지고 영사막 앞 낯선 어른들 틈에 끼어 앉았었다. 사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난데없는 총소리가 산이 무너지는듯이 나더니 이어서 악마의 혓바닥 같은 불길이 하늘을 찌를듯이 솟아오르며 구경군 틈은 와하고 갈팡질팡 흩겨 달아났다. 이 바람에 갑수와 놀고 있던 옥순이가 희봉이가 궁금하여 뛰어 나오고. 애들이 구경 간 집에서는 모두가 학교로 학교로 뛰어가고 야단이 벌컥 일어났다. 운봉이는 태진이, 종호와 얼떨결에 개울가로 무사히 피해 났으나 그제야 희봉이 생각이 나서 악을 쓰고 희봉이를 찾아 집에서 쫓아 나온 아버지와 함께 돌아다닌다. 한편 희봉이는 우루루 밀려가는 사람들에 그만 쓰러져 발길에 채이고 밟히어 정신을 잃었다. 아 가냘핀 희봉이의 목숨은……

탐 프

박 영 종

탐프 소리 지지지
눈 오는 소리
조그맣고 하얀
싸락눈 소리

연필 소리 사각사각
눈 오는 소리
조그맣고 하얀
싸락눈 소리

참말로 밖에는
눈이 오나봐
조그맣고 하얀
싸락눈이 오나봐
지붕 위에 사락사락
나직한 소리

그림·임 동 은

황수 아버지는 마루 끝에다 희봉이를 내려 놓으시며,

"가만히 뒤에서 붙들어 줘라. 다리를 못쓰니까, 다리 다치지 않게…"

"네."

운봉이는 얼른 마루로 뛰어올라가서 희봉이를 받아 안아내리며,

"많이 다쳤에요?"

우선 제일 궁금한 것부터 물었다.

"글세,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다마는…아무두 안계시나?"

"희봉이 찾으러 나가셔서…"

말을 맺지 못하고, 운봉이는 문득 발 밑에 꼭딱 안하고 누워 있는 희봉이 한테로 시선을 돌렸다.

마루 위에 힘 없이 쓰러진 희봉이는 창백한 얼굴에 눈만 말똥말똥해서, 얼른 보기엔 중상을 치르고 난 아이 같았다. 작은 입에서는 신음 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으나, 이를 악물어 고통을 참고 있는 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말이 없는 것이 미욱 운봉이를 책망하고 있는 듯만 싶어, 운봉이는 그 곁에 서 있는 것조차 괴로울 지경이다.

"빨리 가서 아버지 오시래서 …치료를 해 줘야 할 게 아니냐?"

황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네…저어…아버지 오시래게 …잠간만 거기 계세요."

운봉이는 얼른 그 앞을 가로막고, 황수 아버지를 다시 마루

쪽으로 머리를 돌리며;

"희봉이 혼자 두구 갈 수도 없구요. 또 그냥 가시면 아버지한테 제가 혼나요."

그리고는 얼른 고개를 돌려,

"창수야, 내 얼른 갔다 오께, 여기 있어, 응?"

운봉이는 말을 마치고, 이번에는 희봉이 붉어진 것을 알리기 위하여, 뛰쌀 걸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3)

어머니 등에 업혀 치료를 받고 온 희봉이는,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눕자마자 곧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

길어졌이고 깊숨하고 하여, 겉으론 여러 군데 상처가 났으나, 뼈까지는 다치지 않았으니 걱정 없다는 의사의 말이었다 한다.

그 말을 듣자, 온 집안이 쟁 그렸던 이맛살을 폈다. 무거운 짐을 벗어 놓은 것 같아, 모두들 마음이 가벼워진 것이다.

"불행중 다행입니다. 업어다 드린 보람이 있었군요. 하하하."

창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소리 내어 웃자 희봉이 아버지도 따라 웃으며,

"그게 다 어느 분 덕인지 모르겠읍니다. 참 이 은혜는 백골난망이지요."

"원 무슨 말씀을…"

"그럼, 인젠 한시름 잊었으니…자, 이 잔이나 천천히 드시구…"

"아닙니다.그렇게 못합니다."

"공연히 사양을 하시는군. 사양하신다구, 딸년 생명의 은인을…"

"글쎄, 그 소린 인제 마시라니까…"

아까까지의 침울했던 분위기가 사라지자, 비로소 술자리다운 흥취가 떠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밀안간 이야기 소리도 높아지고, 연해 웃음이 터져나왔다.

희봉이가 곤히 잠든 것을 보고, 희봉이 어머니도 술상 곁으로 나와 앉아,

"선생님 덕분에…"

창수 아버지에게 새삼스럽게 감사의 뜻을 표하려 했으나, 감격이 너무나 컸기때문에 말을 다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아니올시다. 저야 뭐…"

"참 선생님이 그 때 그 앞에 안계셨드라면, 제까짓년이 밟혀 죽었지, 도리 있었겠에요?…"

"허긴, 희봉이 너머진데가 마침 저이집 문전이라서 다행이었읍니다."

"다 무슨 인연인가 봅니다. 하하하."

한바탕 또 웃음이 계속되었다.

"그건 그렇다 허구…그 소동통에 죽은 사람두 있다지요?"

"죽은 사람은 없어두…아마 딛 사람은 생명이 위독한가봐요."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듯이 희봉이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게, 아예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아이를 보내지 말게 니까…희봉이두 건선생만 안계셨어 봐, 그게 아마 그래두 명이 있었을래…"

창수 아버지는 또 허허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글쎄, 그 소린 인제 고만 하시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그건 다지나간 얘기고…"

창수 아버지는 여기서 얼른 화제를 돌렸다.

"저어…학교가 반이나 됐다지요?"

건넌방에서 창수와 과일을 먹고 있던 운봉이가 그 말을 가로채어,

"그럼요,새로 지은 교실이 둘이나 홀딱 타버리구 운동장 한모퉁이가…"

"이녀석아, 들기 싫어!"

운봉이 어머니가 큰 소리를 질렀다.

"동생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녀석이 뭘 잘했다구 큰소리냐 큰소리가…손님 이 계시데서 가만 두니까 암냄해서…너도 학교에 갔다 왔구나?"

"야네요. 얘기 들었에요."

"아기만 들은 녀석이…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어?"

"정말 안갔에요, 창수한테 물어 보세요, 어머닌 제애니…"

"뭐가 제애니야?"

운봉이 어머니가 일어서려는 것을, 창수 아버지는 얼른 말리며,

"고만 두십시오. 얘기 들으니까, 운봉이는 운봉이 대루,제 딴엔 속을 무척 태운 모양인걸요. 그렇지?"

그 바람에 운봉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고, 어머니도 마음을 돌리시어 부엌으로 내려가시었다.

다시 사이 좋게 술잔이 왔다 갔다 했다.

"참 원인은 알았는지 모르겠읍니다."

"글쎄요, 소문엔 별소리 다, 들리지만,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 모양예요."

"여러 사람 붙들려 갔대지요?"

"그렇대요. 학교 선생님두 참고인으루 불려 갔대나봐요."

아직도 동네 안은 서성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조용ㅎ지를 않았다. 따라서 여러가지 뜬소문이 떠돌았다. 그러나 하나도 종잡을만한 것은 아직 없었다.

잠간 이야기가 끊지고, 2—3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때 아이들 한 떼가 우루루 몰켜 들어왔다.

"얘, 운봉아!"

"희봉이 왔대지?"

"희봉이 많이 다쳤니?"

종호와 태진이가 앞서서, 저희들 푼수엔 반갑다고 아른체를 하려 온 모양이었다.

(4)

날이 밝았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온 동네가 몸부림치던 하룻밤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어제 밤까지의 일이다. 오늘부터는 또 오늘부터의 새 생활이 시작되고 계속되고 하여야 한다.

동네는 다시 질서를 회복하였다. 사나운 꿈에서 깨인 듯이 잠간 어리둥절 하였으나, 지난 일을 그렇게 오래 두고 생각할 여유가 이 동네에는 없었다.

시치미를 딱 떼고, 이 고개 너머 동네는 여전히 평화스럽고, 고요하고, 서울 근교에서 산 좋고 물 맑기로 이름난 고장일 뿐이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동네 자신도 그렇게 보이려고 애썼다.

종호는 아침을 먹고 나서, 문득 갑주와의 약속을 생각해 내었다.

…참, 갑주허구 고기잡이 가겠겠다….

종호는 잠간 망설이었다.

웬 일인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모일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다. 종호는 하여간 갑주네 집까지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갑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

"갑주야!"

울타리 밖에서 종호는 가만히 갑주를 불렀다. 어젯밤 소동이 있은 후이라, 어떤지 큰 소리를 내어서는 안될 것 같이 생각이 든 것이다.

갑주는 정말 종호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곧 알아 듣고 뛰어 나왔다.

"종호냐? 일찍 왔구나?"

"응."

두 소년은 의미 없이 서로 빙그레 웃어 보이고, 나란히 걸어 개울 가로 내려갔다.

"너 어저께 밤에 구경 갔었니?"

갑주가 물었다.

"응. 넌?"

"난 집에 있었어. 넌 그럼… 혼났겠구나!"

"혼나긴 뭘 혼나. 꿀구경만 잘 했지."

종호는 가슴을 쭉 펴고, 한 번 뽐내본다. 나는 그런 집장이가 아냐…사뭇 그 태도는 어른 같다.

"난 집에 있었어두 감쪽 놀랐는걸."

그러면 그럴수록 갑주는 반대로 집장이가 되어버리고 싶다.

"흥!"

종호는 코웃음을 치고 나서, 그까짓거 아무려면 어때, 하는 듯이,

"오는 고기 집이 가련?"

하고 물었다.

"글세…"

"갈테면 가. 내 데리구 가께…"

그러나 실상은 종호도 공연히 하는 소리다. 속으로는 갑주가 안 가겠다기만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다른 아이들은?"

한참 생각하더니, 갑주는 이렇게 되물었다.

"아마…안갈거야."

"왜?"

"글쎄…안가기 쉬워!"

"그럼, 우리두 고만 두까?"

"네 맘대루 해!"

종호는 속으로 골 났다, 하면서 싱긋 웃고,

"너…얘기 들었니?"

불쑥 이런 것을 묻는다.]

"무슨 얘기?"

"학교 탄 얘기!"

"응…"

갑주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호하게 대답하고 더 말이 없다.

"애, 너 학교에 안가보련?"

"가보까?"

두 소년은 철벙 개울 속으로 뛰어들었다. 개울을 타고 내려가도 학교 문 앞에 당도할 수 있는 것이다.

(5)

"희봉아."

운봉이가 밖에서 뛰어 들어오며, 호들갑스럽게 소리쳤다.

"종호허구 갑주가 왔다."

희봉이 누워 있는 자리 옆엔 이미 옥순이, 태진이, 창순…이 셋이 문병이랍시고 와 앉아 있는 것이다.

"어서 들어오래."

"갑주가 어떻게 다 왔니?"

"종호가 알려 줬지, 뭘."

희봉이도 동무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고 보니, 아프다고 상을 찌프릴 수 만도 없는 일이다. 억지로 기운을 차려, 입가에 웃음까지 띄우며, 새로 들어오는 동무들을 맞았다.

"너이들, 희다 여기 와 있었구나."

"어쩐지 동네가 조용허드라."

"너무 떠들지들 말어. 희봉이 아픈 사람 아냐?"

"떠들긴 지가 제일 떠들면서 두…"

종호는 이렇게 옥순이를 타박을 주고 나서,

"너이들 학교에 가봤니?"

하고 물었다. 갑주는 잠간 고개만 끄떡하고 나서, 말 없이 한 구석에가 비켜앉았다.

"가면 뭘해, 청년단이 안들어 보내는걸…"

태진이가 툭 가로채었다.

"에, 참 무시무시하게 탓드라! 선생님들이 모두 나오셨구, 경찰서에서두 나오구…"

"뭐가 터졌는지 알었대든?"

희봉이가 기느다란 목소리로, 제일 궁금한 것을 물었다.

"입때 몰랐니?"

종호가 또 뽑낼 판이다. 학교에 갔다가 청년단에 다니는 자기 사촌 형한테서 종호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고 온것이다.

해방 전까지는 학교 뒷산에 나무가 울창했다. 인가가 멀고, 아늑한 골짜긴데다 나무가 무성한 점을 이용하여, 일본군은 여기다 굴을 파고 무기와 식량을 많이 숨겨 두었던 것이다. "태평양전쟁"이 끝날 무렵 이야기다.

해방이 되자 이 근처 산 나무는 모조리 잘라 없앴다. 굴도 물론 발견되어 거기 감춰 두었던 물건들은 전부 우리경찰 손으로 넘어왔다.

그 후 교실이 부족해서 학교를 새로 짓게 되어, 이 골짜기가 학교터로 공교롭게 작정 되었던 것이다.

화약만은 깊이 감춰 두었던지 굴을 발굴할 때도 까맣게 몰랐었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폭발되어, 이 동네를 송두리채 뒤흔들어 놓을 줄은, 실로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그러면 어째서 그것이 폭발했나, 하는 것만은 아직 의문이다. 어째서 그것이 언제 와서 땅 위에 드러나고, 무엇 때문에 거기 불이 붙었나, 하는 것을 경찰과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조사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 구경 간 아이들은 한 번씩 다 인제 불러다 물어 본대, 파출소에서…"

종호는 이야기를 끝마치고, 방안을 한바퀴 휘어 둘러 보았다. 불러다 물어본다는 말에 질렸는지, 모두들 잠잠히 앉아 있을 뿐, 말이 없다.

"어른들이 담배 먹다 그랬는지 누가 아나?"

희봉이가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

"아니래. 조사해 봤느니, 아무래두 아이들 장난 같다구, 아이들만 찾는대…창수야, 너두 어저께 구경 갔었지?"

종호는 무심코 물었으나, 창수는 자기를 지목해 말한 듯 느꼈는지,

"갔으면 어쩔래야?"

발끈 성을 내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발딱 일어섰다.

얼굴엔 노한 듯한, 괴로운 듯한, 이상한 표정이 떠 있고, 전신이 가늘게 한참동안 떨렸다.

(다음달치에 계속)

새 공 부

11월치의 해답

(1) 양(羊), 풀. (2) 종유석, 훈련원. (3) 세검 정, 태고 사. (4) 학문, 정치. (5) 진디물, 슬기. (6) 해란강, 얼다오거우. (7) 서소노, 하남우리성. (8) 혁거세, 양산. (9) 혁거세, 경주. (10) 백제, 온조왕. (11) 창해, 살수. (12) 요동 태수, 낙랑 태수. (13) 요동, 현도. (14) 마한, 수곡성. (15) 경상북도, 경상남도. (16) 다신교, 배천교. (17) 순도, 아도. (18) 이사부, 거칠부. (19) 을지문덕, 내호아. (20) 성충, 계백. (21) 태종, 무열왕. (22) 남선, 남건. (23) 혜자, 혜원. (24) 쌍영총, 첨성대. (25) 전등불, 촛불. (26) 달, 연필. (27) 탄소, 수소. (28) ○문구멍을 통하여 들어온 햇빛, ○마분지 두장의 구멍을 통하여 본 빛. (29) ○햇빛이 먼데로 빛이 되나간다, ○거울을 떠난 빛이 눈에 들어온다. (30) 거울, 잔잔한물위. (31) ○물 속에 든 물건, ○굴방 속에서 물그릇 속으로 들어오는 구멍을 지난 햇빛. (32) ○한 물질 속에서는 곧게 나아간다, ○물건에 닿으면 되쏜다. (33) 물, 유리. (34) 물, 양철. (35) 종이, 부연유리. (36) 넘빨강살, 넘보라살. (37) 말리는 것, 소독. (38) ○살갗의 양분을 만드는 힘, ○병균을 죽이는 힘. (39) ○비 온 뒤, ○여오 비 오는 때. (40) ○프리슴을 대보고, ○일곱 가지 빛을 붙인 팽이를 돌려 보고. (41) ○불룩한 것, ○오목한 것. (42) 만리경, 사진기. (43) ○식물의 세포를 보게 되었다. ○전염병의 병균 같은 것을 보게 되었다. (44) 눈섭, 눈껍질. (45) 원안, 돋보기눈. (46) 법률, 백성. (47) 연구, 고안. (48) 일, 나눈다. (49) 수증기, 기. (50) 혀, 떠.

새해부터 잇달아 실리는 두 연재소설

[염 상섭 선생의 현 대 소 설] 정월치부터

2월치부터 [박 종화 선생의 역 사 소 설]

좋은 글만을 골라서 싣는 우리 "소학생"에서는 오는 정월치부터 우리나라 소설계의 으뜸, 염 상섭, 박 종화 두 분 선생의 장편 소설을 새로 실어서 다시금 20만 애독자의 절찬과 환영을 받으려고 한다.

(사진은 염 상섭 선생)

염 선생님의 작품은 "채석강의 소년"이라는 현대소설인데, 몹시 가난한 소년과, 부유한 소년이 우연한 기회에 서로 친하게 되어, 여러가지 눈물겨운 사건이 벌어지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소설이다.

삽화는 김 중초 선생 담당

염 상섭 선생은 부드러운 말과 유창한 글장으로 소설을 쓰시어 이 이름을 날리신지 벌써 30년이 넘은 분이며, 박 종화 선생은 시인이면서 역사소설로는 첫 손을 꼽는 분으로 이분도 30년을 넘어 문학에 바쳐온 대가이시다. 이러한 어른들이 아직 어린이들 앞에 한 번도 소개가 안 된 것은 유감이지마는, 그러나 앞날의 대한은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있는 것인만큼, 앞으로 특히 "소학생"을 통하여 힘자라는 데로 글을 써 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시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런 일인가.

손 꼽아 기다리라!

(사진은 박 종화 선생)

박 선생님의 작품은 지금 정성을 다하여 쓰시는 중인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가장 과단 많고 흥미로운 인물을 골라서 여러분 앞에 보일 터이니 제목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벌써부터 기다리십시다.

삽화는 이 향린 선생 담당

지방 도처에서 애기거리가 되어있는 "이름없는별들"과 "모오구리"가 계속하여 실리는 것은 물론, 내용은 더욱 충실하고 값은 언제든지 100원이니 애독자 여러분은, 아직 독자가 되지 않은 동무들을 권하여 꼭 독자가 되도록 권하라.

이 밖에 정월치에는 새해에 여러분이 재미있게 놀을 수 있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실려 있읍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비밀!

☆ 백두산 이야기 ☆

말썽되는 정계비 (定界碑)

홍 종 인

모사한 정계비 축척 1/10

1

무두봉(無頭峰)에서 백두산 상봉에 오르는 날, 대연지봉(大臙脂峰)허리를 타고 넘으면서 바로 백두산 영마루를 쳐다보게될 그 때부터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감격을 일으키게한 것은 우리나라 최근세 역사상 가장 큰 문제의 하나를 빚어낸 백두산 정계비(定界碑)의 옛자취를 찾아 보자는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38년전 높이가 석자에 넓이가 두어자 가량되는 돌 위에 멸자 안되는 글을 새겨 세우고, 당시의 청(淸)나라와 우리 조선과의 국경(國境)의 그적으로 삼기로 했던것이 그후 이 그 비문(碑文)의 열몇자 되는 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두만강(豆滿江)건너 간도(間島)벌판이 네땅이냐 내땅이냐 하는 큰 시비를 일으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니, 이는 단순한 시빗거리이었다느니보다도 우리나라의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국가의 명예를 걸고 분투한 거룩한 자취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정계비는 이미 그 자리에 있지 않다. 정계비가 서 있던 자리는 바로 백두산 상봉으로 올라 가는 산어구의 표고(標高) 2200에터 되는 곳인데 풀숲을 더듬고 더듬어서 그 자취를 어름잡고 찾을 수가 있을 뿐이고, 남은 것은 정계비와 같이 돌무더기를 게천가에 띠엄띠엄 놓았던 것만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기가 그 옛날 우리나라와 청국 사이의 국경으로 표했던 그 곳인가 하는 감회를 새로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비석이 없어진 것을 명확히 발견한 것은 지금으로 부터 19년전 1931년 여름 7월 28일 오후부터 29일 오전 사이이다. 바로 이때로 이 국경 방면엔 우리 독립군을 위시하여 일본을 대적으로 하는 무장군대가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일본군대를 앞세우고 여름 한철에 잠간 다녀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일본군대와 동행했던 등산가들이 그전날 아침에 그 자리에서 정계비가 서 있는 것을 똑바로 보고 산상에 올라가서 하로밤을 자고 다음날 내려 왔더니, 정계비는 간곳 없고, "백두산 등산로(登山道)"라고 쓴 목제 하나를 꽂아 놓은 것을 그때 등산했던 사람들이 보고 내려왔던 것이다. 그 비석은 국경을 분간하는 귀중한 표일 뿐 아니라 역사적인 한 유물로서 역사와 문화를 사랑할줄 아는 문명국인이면 네것 내것 할 것 없이 당연히 귀히 여기어야 하는 것이기늘 누엇을 생각했던지 함부로 역사적 유물을 파괴해서 없이한다는 것은, 일종의 야만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상불 그 비석은 그 자리에서 그리 멀리 갖다 버리지 못했을 것이므로 그 근처에 아직도 묻혀 있을 것으로 판측되고 있으나 그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2

그러면 그 정계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었는가? 이것을 설명하자면 먼저 이 비석이 서게된 유래부터 말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삼백여년전 중국의 명(明)나라가 피폐해지니 만주(滿洲)의 족속이 일어서 지금 봉천(奉天)에 나라를 세우고 중국 본토로 쳐들어가 북경(北京)에 자리를 잡고 중국을 통일한 것이 즉 청나라로, 삼십여년전 중국에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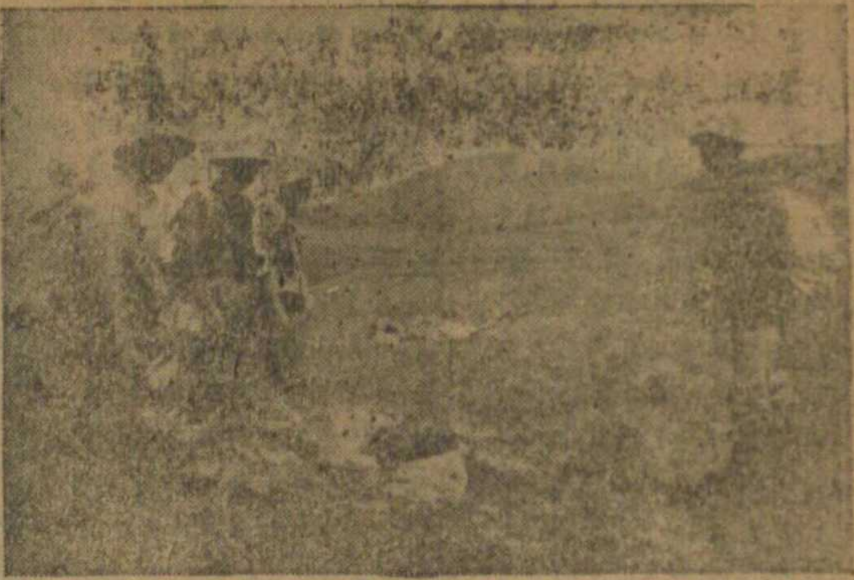
명이 일어나 중화 민국이 서기까지 200년 가량의 역사를 주었다. 그런데 청나라의 유명한 황제이었던 강희황제(康熙皇帝) 때요 우리 조선의 숙종왕(肅宗王)때에, 청 안북도 위원(渭原)땅의 이 만지(李萬枝)의 묘명의 산삼(山蔘) 캐는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가서, 중국사람과 싸워서 죽이고 그 사람들이 가졌던 산삼을 빼앗아 온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경계로 우리 나라와 청나라 사이의 큰 문제가 되었다. 청나라에서는 이 때에 남의 땅에 넘어 와서 무법한 짓을 하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국경지대가 되거 좁다면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을 바로 마저두고, 다시는 함부로 왕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두 나라 백성이 서로 말썽없이 살 수 있게 하는 도리일 것이라고 하여, 국경선(線)을 새로 밝히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백두산 서쪽은 압록강 줄기가 두텁하여 국경선이 비교적 명확하다 할 수 있지만, 백두산 동쪽은 두만강(豆滿江)이 있다고 해도 그상류는 강이라기 보다도 실개천 같은 것이고, 또 그물기가 북쪽의 간도(間島)방면으로 여러 갈래 뻗어 있고, 거기에는 조선 사람이 옛날 옛적부터 많이 살아 오던 곳이고, 또 지금까지 네 땅이니 내땅이니 해볼 일이 없었던 터이어서, 백두산 동북쪽 땅은 국경선을 따지기가 어렵게 되었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숙종 대왕 38년이요, 청나라 강희 51년(서기 1712년)에 두 나라의 대표가 백두산 방면을 살피고 국경선을 새로 작정하기로 하고 그 표적으로 세운 것이 백두산의 정계비와 돌무더기 들이었다. 비석에 새긴 바에 의하면,

"명을 받아서 여기까지 자세히 살피고 국경선을 작정하는데, 서편은 압록강으로 하고, 동편은 토문강(土門江)으로 하기로 하여, 두강줄기가 갈리나간 분수령(分水嶺)위에 돌에 새겨서 표적하기로 한다."

는 것이었다. 그러고 다시 뒤에 두 나라 백성사이에 혹여 분쟁이 일어날까 염려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한 산림지대는 빈땅관으로 해두고 어느 쪽에서나 서로 넘하지 말자고 했던 것인데, 어느 사이에 한정도의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지방의 우리 나라 백성들이 많이 건너가 살게 되었고, 또 청나라 백성들도 많이 들어가 살게 되자, 서로 교섭이 없을 수 없게 된 것이 옥철십년전일이다. 청나라는 우리 보다 큰 나라이요, 국력이 강한 것을 자세하여 언제나 우리를 업누르기만 일삼는 터인데, 이때에 청나라에서는 강을 건너가서 사는 우리 나라 사람들을 자기나라 백성과 같이 다스리겠다 하여, 나라의 땅도 땅이려니와 백성까지 제것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사정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 나라 백성들을 모두 데려 오겠다고 했더니, 우리 나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모처럼 오랫동안 수고를 들여서 개간한 땅을 그대로 버리고 갈 수 있겠느냐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문제를 다시 생각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때에 생각난 것이 문제의 정계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청나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러하던 우리 나라 백성들이 사는 곳이 과연 어느 나라 땅이냐 살펴 볼바 아니냐고 하

며 우선 국경선을 밝히 조사하기로 한 것이 우리 나라 고종왕(高宗王) 20년 때이었다. 정부에서는 어윤중(魚允中)이란 분을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로 함경북도 경원(慶源)에 보내고, 거기서 다시 우리 사람을 먼저 내보내서 5월과 6월에 두차례나 백두산을 탐험하게하고, 정계비 비문과 비문에 씌운 지리(地理)를 자세히 조사하게 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정계비가 서 있는 서쪽은 압록강 원류(源流)이고, 그 동쪽의 냇줄기는 북으로 흘러 흐르면서 송화강(松花江)의 물줄기의 한가닥이 되어있는 토문강인 것이 확실하고, 또 토문강 줄기를 따라 내려가는 토문자(土門子)라는 마을도 있어서, 정계비의 서쪽 물줄기가 토문강의 원류인 것은 명확했다. 그뿐아니고, 두만강은 정계비가 있는 곳에서는 서남쪽으로 수십리를 나가서야 있는데



정계비를 뽑아버린 근처. 띠엄띠엄 있는 돌은 정계비에서 토문강까지의 경계를 표한 돌무더기

그것은 바로 두두봉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 물줄기인 것이다. 두만강은 즉 토문강(圖們江)이라고 쓰기도 하여 그 음(音)이 "토문"과 비슷하기는 하나, 두만강과 토문강은 전혀 별개의 강인 것이 명확했다. 그렇다면 토문강의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면서 동쪽 땅은 당연히 우리 나라 땅으로 작정되었던 것이 사실이어서, 바로 백두산에서 북으로 벋어서 동북으로 달린 노야산맥(老爺山脈)안의 벌판과 산림 속에 우리 나라 백성이 살고 있대서 조금도 이치에 어그러질리 없는 것이 즉 노야산맥 동쪽이 동간도 혹은 북간도라고 하는곳이고 그서쪽이 서간도라는 곳인데 북간도만도 넓기가 함경북도 보다 좀 크고 토지가 비옥한 곳이다. 더구나 이 땅은 1500년 내지 이천수백년 전은 우리 나라 고구려(高句麗)의 옛 땅이었고, 고구려가 평양(平壤)에서 망하게되자, 고구려 사람들이 쫓기어 여기서 발해(渤海)라는 나라를 세웠던 곳이다. 상고 때의 역사를 더듬어도 우리 땅이라고 해서 무방하더니와 그후의 이 지방은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살고있던데에 우리 나라가 일본에 합방되자 일본의 압박에 살 수 없어서 만주로 떠난 사람 중에 특히 간도로 간 것이 또 많았다. 그 때문에 현재에도 중국 사람 두 사람에 우리 나라 사람이 여덟명 꼴이어서 그땅의 사실상 주인은 우리 나라 사람이라고 할만했다.

3

그런데 이야기는 다시 60년 전으로 돌아간다. 청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한 간도방면 땅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을 문제 삼게 되여 우리 정부에서는 미리 정계비와 그 근방 지세를 자세히 살피고 이에 대항하여 간도 땅은 우리 것이 틀림없다는 주장을 하기로 작만 되었을 때인 고종 20년 (서기 1883년)에는 두 나라 대표가 나서서 백두산의 현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중하(李重夏)란 분

소년과학문답집
再版 왜 發賣
46版美本 값 150원
어떻게? 왜 속편 값 150원
世界 笑話 三百題
깔깔 학교 값 200원
재미 있고 의견 느는
수수께끼 책 값 130원
유치 독본 어린이 독본 값 130원
글벗집 發行
도맡아 파는 데
文藝書林 서울

이하의 대표단이 청나라 대표와 함경북도 회령부(會寧府)에서 만나, 우선 담판을 개시했는데, 청나라측에서는 정계의 "토문강"이라고 함은 두만강이니, 두만강이북은 청나라 땅이라고 고집하는 것이다. 마침내 양국 대표가 백두산에올라가 "토문강"의 물줄기를 찾아보니 과연 우리 나라 주장에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그래도 청나라 대표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이번 길은 다만 현지를 조사만 했을 뿐이고, 어느 쪽이 어떻다는 결정은 짓는것은 후일로 밀우자고 했다. 그래서 다시 그 후에도 정계비 담판은 계속하는 중, 당시의 정부에서 외국과의 교섭을 맡아보던 분으로 윤양 김 윤식(雲養 金允植)이란 분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직에 있어서 청나라와 교섭하기에 많이 수고 하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측의 주장이 정당하고, 또 강경하였지만 청나라측에서는 일을 끌막지 않고, 끌어가는 동안에, 서기 1894년에 청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이 패하고, 또 뒤를 이어 노서아가 뒤에서 만주도 들어 오게되어 동양의 판국이 뒤바뀌는데, 만주로 들어오는 노서아 군대는 간도에도 들어가게 되어 우리 나라 백성에게도 이해가 없지 않을 것이므로, 서기 1902년에 정부에서는 다시 이 범윤(李範允)이란 분을 보내서 군대를 거느리고 간도땅을 우리 나라 힘으로 관리(管理)하기로 했었다. 이 때문에 간도의 청나라 관리하고 분쟁도 자주 일어나서 청나라와의 교섭이 다시 중대화하려 할지음 서기 1904년에 노서아와 일본과의 일로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전동양의 판국이 뒤바뀌게 되는데, 노서아가 전쟁에 패하는 결과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의 세력에 들게 되어 광무(光武) 9년에(서기 1905년) 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되고, 다시 5년후인 융희(隆熙) 4년(서기 1910년)에는 합방조약(合邦)이 체결되어 우리 나라가 없어지게 되니, 나라 없어지는 우리에게 간도문제가 다시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일본의 간사한 책략과 악에 바친 욕심은 우리 나라를 빼앗고, 또 만주를 빼앗으려고 하기 전에 일찍부터 우리 나라에서 문제해 오던 간도 땅에 먼저 손을 대이기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보호국으로 한 일본은 통감부(統監府)만 것을 두고, 우리정부를 제 마음대로 지휘, 관리하는 동안에 일본은 흉계를 꾸미어 서기 1907년에 간도에 "통감부 출장소"란 것을 냈다. 그 근거는 본래 간도가 한국 땅인 것이 분명하고, 그땅에 한국백성이 많이 살고 있으니 한국의 국방(國防)과 외교(外交)를 관할하게 된 일본의 통감부는 한국의 땅을 모두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래서 군대와 관리의 일대를 몰고 간도로 들어가 용정촌(龍井村)에 자리를 잡고, 담판해서 안되면 무력으로 해볼 작정이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진 지음에, 일본은 일로전쟁의 결과로 얻은 만주의 이권(利權)을 더 크게 만들려는 계략을 청국에 내 놓았다. 즉 만주의 중심지의 하나인 장춘(長春)에서 길림(吉林)에 통하는 철도를 다시 간도를 통과하여 조선의 회령까지 연장시킨 것을 청국이 허락한다면, 간도는 청국땅으로 인정해 주마고 한 것이다. 청국도 이것을 응락하여 두만강 이북의 간도는 완전히 확실한 청국땅인 것을 일본과 청국 사이에 약정(約定)하고 간도 문제의 분쟁을 일단 끝막은 것이 합일합방 바로 전년이었다.

3

비록 정계비는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없으나 돌무더기의 표석(標石)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압록강, 토문강의 원류를 예나 지금 이나 다름없이 더듬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니 실로 감회는 새로웠다. 지도 위에서는 국경선이 너무도 두렷하지만 국경의 정계는 두말을 빌리면 두 나라 땅을 맞는 것이 되는 그것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국민과 국민 사이에 다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근세이래의 국가 간의 습관이다. 그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의 옛 어른들이 눈비를 무릅쓰고, 몇번이나 여기에 오르내렸던고. 그 역시 후세의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는 정성이었었음을 생각할 때, 그 어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을망정 그 수고에 우리는 다시 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모험소설☆

모오구리 (4)

【정글의 소년왕】

기플링 지음 · 작은 돌 번안

소리개와 능구렁이

모오구리는 나무 꼭대기에 끝까지 올라가면서, 소리쳤읍니다.

"우리들은 한 피를 타고난 겨레다. 그대와 나와는."

이것은 딴 곳에 사냥 갔을 때에 정글의 무리들이 쓰는 인사말입니다.

소리개는 깜짝 놀라 끼므룩끼므룩 야릇한 소리를 내면서 모오구리를 쫓아왔읍니다. 나무 가지들이 불길처럼 흔들리더니, 조그맣고 고동색 얼굴이 불쑥 보였읍니다.

"내 뒤를 좀 쫓아와 줘요!"

모오구리는 다시 한번 크게 외쳤읍니다.

"시오니에 있는 발루 하고, 회의 바위와 바기타에게 좀 알려 줘요."

"대관절 넌 누구냐?"

"난 모오구리에요. 모두들 날더러 사람의 새끼라고 그래요. 제발 내 뒤를 쫓아와 줘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오구리의 몸은 하늘 높이 또 한번 소꾸치다가 떨어지는 것이었읍니다. 이 때에 란은 무엇을 알아채린 것처럼 고개를 끄떡하더니 하늘 높이 떠올랐읍니다. 란은 모오구리를 처음 보았으나 말만은 진작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읍니다.

소리개는 자꾸자꾸 하늘 높이 올라가서, 마침내는 조그만 점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망원경처럼 날카로운 눈초리는, 모오구리를 껴안고 달리느라고 나무가지가 흔들거리는 것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저 혼자 중얼댔읍니다.

"놈들은 더 멀리는 가지 않을 게다. 놈 들은 시작한 일에 끝을 맺는 법이 없는 놈들이니까, 저러다가 흐지부지 어린 아이를 어디다 내버릴거야. 흥, 그렇지만 누어서 침 뱉는 격 이지. 발루나 바기타에게 자칭해서 혼이 나구 싶어하니……"

소리개는 발을 옹크리어 배에 착 붙이고 날개를 빡 펴고는 흐느적흐느적 날아서 모오구리의 뒤를 따르고 있었읍니다.

한편, 발루와 바기타는 분함과 원통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미치광이처럼 펄펄 뛰고 있었읍니다. 바기타는 이때것 올라본 것보다 훨씬 높이 나무에 기어 올라 보았읍니다. 그러나 가는 나무가지가 그의 몸 무게 때문에 꺾어지고, 발톱에는 나무껍질이 가득 박히는 것 밖에는 아무 소득이 없었읍니다.

"아 왜 넌 미리 고너석에게 주의를 안 시켰더란 말야?"

하고, 그는, 서글픈 얼굴을 하고 시름없이 서 있는 발루에게

에고 슬부짖었읍니다. 그 문한 몸집을 하고서 원숭이를 쫓아 볼까 하며 찐땀만 흘린 발루에게, 바기라는 잇달아 소리쳤읍니다.

"그렇게 잘 때려 기른다는 게, 오늘날 이 지경이 되었으니, 그래 넌 고녀석에게 뭘 가르치고, 뭘 주의시켰다는 거란 말야?"

발루는 땀을 흘리면서,

"우리끼리 싸우는 걸랑 나중허구, 어서 어서 쫓아가 봐! 설마 못쫓아 갈라구."

합니다. 바기라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쓰디쓴 웃음을 웃었읍니다.

"발루 고 걸음으루 말야? 어디 싫것쫓아가 보렴. 아, 쇠 걸음보다도 더딘 주제에 그래 원숭이를 쫓는 다구? 흥, 이 장한 법률 선생아, 꼬마 대장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나까지 정신이 나가겠으니 제발 좀 가만히 앉어 있게. 우리 가만히 앉어서 좀 계획을 세우잔 말야. 이제 뭐를 쫓은 대짜 일이 될 것 같지 않어. 너무 수선을 떨면, 그놈들이 모오구리를 떨어뜨릴까 겁나."

"우후! 우후! 그놈들은 벌써 모오구리를 어디다 내동댕이쳤는 지도 몰라. 원체 까부는 놈들이니까. 아아 모오구리, 모오구리, 왜 나는 네 머리를 때리기만 하고, 원숭이 놈들을 조심하라고 일르질 않었더란 말이냐? 아아 모오구리는 지금 살었을까, 죽었을까! 아마 암호 같은 것은 다 잊어버렸을 거야."

발루는 두손으로 머리를 싸 쥐고 끙끙 가슴을 태우며 어쩔 줄을 몰랐읍니다.

바기라는 보다못해 타일르듯 말했읍니다.

"모오구리가 붙들려 가기 바루 전에 부호를 다 외우지 않았나.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라구. 그러구 여보게 발루, 좀 진정을 해. 몸집은 커다래가지구……만일 내가 지금 자네처럼 으르렁대구 안절부절 왔다갔다 한다면 대체 정글의 짐승들이 어떻게 알겠나."

"정글의 어떤놈이 뭐래두 상관없어. 아아 모오구리가 죽었을까 살었을까! 아마 필시 죽었을 거야."

"놈들이 모오구리를 나무가지 사이로 장난삼아 떨어뜨리거나 내동댕이 치지만 않는다면, 나는 그녀석이 그다지 염려되지 않어. 그녀석은 약고,

지난 달까지의 대강 이야기

인도의 산속, 울창한 나무가 빽 둘러선 정글에서 사는 짐승들은 뻐젓이 법률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늑대에게 길리게 된 사람의 아들 모오구리는 10년 동안을 곰 발루에게서 정글의 법률과, 정글와 풍속과 그리고 제몸을 무서운 적에서 보호하는 법이라든지 사냥질하는 법 같은 것을 자세히 배웠다. 그래서 인제야 말로 정글에서 겁낼 것이라곤 없게 되었다. 표범 바기라에게 곰 발루가 모오구리의 자랑을 하고 있을제 나무 위에서 원숭이의 지껄이는 소리가 났다. 모오구리가 같이 가서 놀겠다니까 발루와 바기라는 펄적 뛰며 원숭이는 정글의 이단자이라 그와는 말도 함께 아니할 뿐더러 원숭이가 사냥 하는 곳은 사냥을 아니하며 원숭이 다니는 길로는 가지도 않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그들의 버릇으로 낮잠들을 자기시작하였다. 한편 원숭이들은 모오구리가 사람의 아들이니까 집을 지을 줄알테니 데려다가 저희 집을 짓게 하려고 가만히 내려와 자고 있는 모오구리를 껴안고 나무 위로 달아났다. 모오구리가 잠이 깼을 때는 이미 원숭이들에게 붙들리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달려가고 있었다. 발버둥질을 치고 미칠 듯이 날뛰는 발루와 바기라를 뒤에 두고…

"모오구리"에 나오는

짐승 이름

아케라……통령늑대
샤·칸……모오구리의 부모를 잡아먹으려던 범
타바귀……간사한 승냥이
발 루……모오구리의 선생
바기라……모오구리의 뒤를 보아주는 표범
카 아……구렁이
칼 ……소리개
하 타……코끼리
망 ……박쥐

또 배우기도 많이 배웠으니까. 그리구 뭣보다두 정글의 짐승들이 집을 먹는 매서운 눈초리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나, 하긴 원숭이떼한테 붙들렸으니 탈은 났어. 놈들은 나무위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들을 눈꼽 만치도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야."

바기라는 침착한 말투로 이렇게 탄식하고 혓바닥으로 앞발의 발톱을 핥았읍니다.

"나는 둔헌 놈야. 왜 이렇게 살이 찌구, 왜 이렇게 둔허담."

발루는 제가 제 몸을 빈정대면서 긴 한숨을 쉬는 것이었읍니다.

이 때 갑자기, 발루는 무릎을 탁 치며 외쳤읍니다.

"그렇지! 놈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꼭 하나 있지! 카아! 능구렁이 카아만은 놈들에게 지지 않게 나무에 기어오를 수가 있지! 그 능구렁이는 밤에 기어올라가 원숭이 새끼를 훔친단 말야. 카아란 소리만 들어도 원숭이놈들은 몸서리치고 꼬리가 뻣뻣이 굳어버리지. 자아, 이러구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카아한테로 가세."

"그렇지만 카아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될 해준단 말인가? 카아는 발이 없는 짐승이니까 우리 족속과는 달려. 그런데다가 난 그 능글맞은 눈이 싫어."

라고 바기라는 말했읍니다.

"카아는 이미 나이가 늙었고, 여간 속이 컴컴하지 않어. 그러구 늘 쫄쫄 굶고 있으니까 우리가 카아를 달래기는 오히려 쉽지 않은가. 집담 제하고 우리 염소를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세."

발루가 이렇게 희망이 있 듯이 말했으나, 카아에 대하여 잘 모르는 바기라는, 역시 의심쩍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카아는 한 번 먹으면 한 달을 잠자는 짐승야. 지금도 잠자고 있을는지 모르지. 만약에 잠을 자지 않는다손치더라도, 그까짓 염소는 제가 잡아도 얼마든지 잡는다고 코웃음을 치면 어쩌누."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발루는, 이에 그 빛 바랜 고동색 어깨를 표범에게 문대며 마지막 의견을 말하였읍니다.

"그러면말야, 자네와 내가 같이 우선 카아를 찾아보고 어떡하든지 그를 끌어 내세. 음? 이러구만 있을 게 아니야."

그리하여 곰과 표범은 능구렁이 카아를 찾아서 길을 떠났읍니다.

성난 "늙은 지렁이"

이럴 즈음, 능구렁이 카아는, 저녁 햇볕을 가만히 안고서, 따뜻한 바위위에 느른히 엎드리어 있었읍니다. 그리고 제 그 얼룩지고 윤나는 비늘을 물끄럽히 내려다보고 있었읍니다. 왜 그런고하면 그는 허물을 벗기 위하여 벌써 한 열흘째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홀딱 벗고 나서 그 껍질이 몹시도 윤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 커다랗고 둥글은 콧잔등이를 땅에 쭈욱 빼고는, 또 그 다섯 칸이 더 되는 몸둥아리를 꿈틀꿈틀 감아 놓고는, 이제 무엇을 먹고서 시장함을 채울까 하는 것을 곰곰히 생각하는 것이었읍니다. 기다란 혀를 늘름늘름 내밀면서.

마침내 곰과 표범이 카아를 찾

아내었읍니다.

"음, 아직 먹진 않은 모양이로군. 그러나 바기라, 자네 조심해야 되네. 놈이 허물을 벗고나면 눈이 어두어 잘 분간을 못하네. 그런데 달려드는 것은 몹씨 날새거든!"

라고 발루는 했읍니다. 그는 그 아름다운 얼룩점이 마치 고동색실과 누런색실로 엮은 짜깨트와 같은 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었읍니다.

카아는 독사는 아니었읍니다. 사실 카아의 말을 들으면 세상에 독사라는 것처럼 비겁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느 독사보다도 몇 갑절 세게 감아조이는 엄청난 힘이 있었읍니다. 그가 무엇을 그러단 몸집으로 칭칭 감았다가 파 조이는 날에는 그것으로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무시무시합니다.

"평안하신가."

하고 먼저 발루가 외쳤읍니다, 허리를 굽히면서. 구렁이들은 매개 그렇 듯이 카아도 가는귀가 먹었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인사말소리를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카아는 머리를 숙으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와락 달려들 자세로, 몸을 꿈틀거렸읍니다.

이윽고 누구의 소리인가를 알아채었는지 능글맞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들 허시오. 거 발루 아닌가. 웬일인가, 이렇게 늦게 찾아오니. 난 마침 시장하던 판일세. 어디 뭐 먹을것 없겠나? 좋은 암사슴 같은 거면 이홀쭉한 배에 우선 기별은 가겠네마는."

"우린 사냥을 하러 왔다네."

하고 발루가 천연스럽게 말하였읍니다. 그는 카아를 너무 재촉해서는 안 될것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

"그럼 나허구 같이 허면 어때? 바기라나 발루나 하나쯤 더 때려 눕히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겠지만, 난— 나는 며칠을 두고 숲 속에 엎드려 기다리지 않으면 잘 걸리지 않는 단말야. 그러구 혹 운수나 좋아서 원숭이 새끼나 한마리 얻어 걸릴까 하구, 밤중까지 나무에 올라가 있어야 하거든. 원 그놈의 나무 가지란 우리 한창적과 달라서 웨 그렇게 쉬 부러지는지. 다 썩어서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탁탁 부러지니."

라고 카아가 말했읍니다.

"허지만 자네 몸집이 무거운 것도 까닭이 될껄."

하고 발루가 말했읍니다.

"허기야 난 길지. 엄청나게 길다구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말야, 내 몸이 길기루서니 그렇게 뚝뚝 부러질 수야 있나. 요새 새로 난 나무들이 다 변변치 못한 때문야. 아 요건엔 마악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먹으려던 판이었는데, 그만 가지가 뚝 부러져서 하랑더면 난 땅 위로 떨어져 나아갈뻔했어. 내 꼬리가 나무에 꼭 갈

기지 않은 탓으로—— 그래서 그만 원숭이놈들이 죄다 깨지 않았겠나? 허, 그래서 갖은 못된 욕만 들었다네."

"말 없는 놈은 지렁이! 아마 그런 욕이겠지."

하고 뒤이어 바기타가 말했읍니다. 카아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최가 먼저 그 소리를 들으면, 그놈들이 날 꼭 지렁이라구 그러겠다!"

하며 카아는 말했읍니다.

바기타는 카아가 성이 난 것을 좋은 기회라 하고, 자못 침착한 말씨로 슬슬 약을 올리기 시작하였읍니다.

"요전에 원숭이떼들을 만났을 때도, 자네애기를 늙은 지렁이라고 그러데. 우린 까짓놈들 허구 잇잘을 어울리기가 싫여서 대꾸도 하지 않었지만. 글쎄 자네가 이가 몽탕 빠져서, 조그만 새끼 염소 한 마리 외에는 어느 짐승한테도 맞서지 못한다고 그러데. 왜 그런고 하니, 하 이 못된 놈들 허는 소릴 들어보게 ——자네가 말일 어미 염소를 맡았다간 그 두뿔에 받혀 죽는다고——"

그런데 뱀, 특히 카아와 같이 조심 많고 나이 먹은 능구렁이는, 발끈 성을 내는 법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때만은 구렁이 양협 목덜미가 불룩불룩 물결치는 것을, 곰과 표범은 볼 수 있었읍니다.

이윽고 카아는 천천히 말했읍니다.

"원숭이놈들은 요즘 이사를 한 모양이지? 오늘 내가 여기서 벌을 쪼이더니까, 나무 꼭대기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나드구먼."

"그—— 그 원숭이떼를 우리는 지금 쫓고 있는 거라네."

라고 발루가 말했읍니다. 그러나 그 말은 목구녕까지 와서 썩 나오지 못하였읍니다. 그것은, 네 정글에서 한다하는 큰 짐승이, 원숭이의 거동에 마음이 끌렸다는 것을 자백한 것은, 발루의 기억으로서는 이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자, 카아는 말했읍니다.

"그럼 무슨 큰 일이나 생긴 게로군. 이렇게 점잖은 사냥군이 돌색이나——이 정글의 대장들이—— 원숭이의 뒤를 쫓는다면 말일세."

그 목소리는 퍽 호기심에 가득 차고 정중하였읍니다.

"누가 아니래나. 나는 나이도 많고—— 가끔 망녕도 피우지만—— 그리고 시오니에 사는 늑대 아이들의 법률 선생에 지나지 않지만, 여기 있는 바기타로 말하면…"

하고 발루는 저도 잘 모르는 말을 우물거릴때에, 검정 표범 바기타는 발루의 말을 가루채었읍니다.

"그렇다네, 난 바기타일세."

바기타는 일부러 입맛을 한 번 다시고 퀘거만한 목소리로 말하였읍니다. 무어 구렁이 앞에서 발루처럼 굽실거릴 것이 없다는 듯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닐세. 카

소년 상식 문답

(문) 크리스머스란 무엇인가?

(답) 기독교에서는 12월 25일을 예수가 탄생한 날이라 하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성대하고 엄숙한 축하를 합니다. 이 날을 크리스머스라 하여, 휴가를 갖고, 정다운 사이에 서양에서는 선물을 주고 받으며, 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것을 "크리스머스·푸레센트"라고 합니다.

(문) 싼타·크르쓰 할아버지는 무엇인가?

(답) 싼타·크로쓰는 "싼타·니코라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옛날 리시야라는 곳에 어진 중이 있어 서력 342년 12월 6일에 세상을 떠났는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 중이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 준다고 하며, 크리스머스 전날 밤에는 집집마다 굴뚝으로부터 들어 와서 아이들 양말 속에 여러가지 좋은 선물을 넣어 주고 간다는 호올렌드의 전설이 있어서, 서양 아이들은 여간 좋아하지 않읍니다.

(문) 기독교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답)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몰릴리어, 마침내

아, 자세히 들어주게. 그 날 도룩놈들 원숭이떼가 우리들의 족속이 된 사람 새끼를 차갔다네. 그 사람 새끼 얘기는 자네도 들어서 알지?"

"언젠가 한 번 들은 법도 하이. 늑대 족속에 사람 같은 것이 끼었다는 말을 하지만 난 그 말을 신용 못했어."

"그게 사실이라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처장 사람의 아이라네."

이것은 발루의 말이었읍니다. 그는 다시,

"사람의 아이 가운데서도 제일 착하고, 제일 영리하고, 제일 대담한 놈야—— 내 제자라네. 그놈은 네 정글 속에 이 발루의 이름을 쟁쟁 울리도록 영리해질 거야. 난—나는 그녀석이 귀여워. 난 그녀석을 사랑해."

하자, 카아는 고개를 흔들흔들 저으며 말했읍니다.

"사람? 으음. 사람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 나도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없지 않어."

"여보게들, 그런 얘길랑은, 우리 좋은 음식 배 불리 잘 먹

빌라트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선고를 받고, 예루살렘 교외의 골고다산 위에서 못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백성의 죄를 도맡아 스스로 희생이 되고, 죽음으로써 사람들을 죄의 형벌에서 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로부터 십자가는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의 속죄의 사랑을 나타낸 표가 되었으며, 종교상으로 "구제"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 "?"과"!"은 무슨 뜻?

(답) 우리 말로는 "?"은"물음표" 즉 의문이나 질문을 나타내고, "!"은 "느낌표" 즉 감탄이나 감동했을때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표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마는 "?"는 사람이 머리를 갸우뚱하고 무엇을 묻는 형상이고, "!"는 사람이 가다가 돌을 걸어차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선 형상이란 말도 있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빅톨•유우고오라는 이가 자기의 책을 출판하였을 때, 많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몰라서 출판사에게 "?"한자만을 쓴 편지를 보냈더니 그 답장에 "!"라는 것만이 써어 있었다는 재미 있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잘 팔리나?"하니까 "잘 팔리오!"하는 대답이었읍니다.

그 한가했을 때에 허기로 허세."

바기라는 좀 있가 나서 이렇게 말하고 곧 말을 이었읍니다.

"시방 우리들은, 사람의 새끼가 원숭이떼에 잡힌 중대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일쎄. 그런데 우리들은, 놈들이 정글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카아만을 무서워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일쎄."

"그렇지 그놈들은 나만을 무서워 하지, 그건 까닭이 있어. 원숭이란 놈들은 종일이면 종일 입을 가만 두는 법 없이 종잘대는 세상에도 어리석은 놈이거든. 그놈들헌테 사람이 붙들렸다면 거 안 됐는데. 놈들은 나무 열매를 들었다가도 실증이 나면 내동댕이 치는 것이 질색이거든. 그놈들이 날더러 뭐라구 그랬지? 뭐 늙은…."

"지렁이. 지렁이라고 그랬네. 그나 그뿐인가, 차마 입에 못 담을 욕을 퍼부었다네."

이것은 물론 바기라가 한 말이었읍니다.

"지렁이라구? 흥! 우리들은 그놈들에게 정글의 대장을 함부로 욕하면 어떤 죄가 된다는 것을 단단히 알으켜 줘야 해. 죽일 놈들 같으니라구. 그래 그 도둑놈이 그 아이를 어디로 데려갔지?"

이번에는 발루가 대답했읍니다.

"그게 큰 문제라네. 그녀석이 끌려간데는 오직 정글 만이 알고 있네. 저해가 지는 서쪽인 것은 짐작되지만, 그래 카아, 자네는 통 모르겠나?"

"내가? 내가 걸 어떻게 알어. 나는 저놈들이 내 앞에 왔을 때에 잡을 따름이야. 나는, 더군다나 원숭이새끼 따위를 내가 자진해서 잡거나 그런 법은 없었어."

이 때였읍니다.

"이 위, 위를 보아요. 시오니 늑대굴의 발루님."

하는 소리가 들렸읍니다.

발루는 처음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나하고 두리번거리다가 하늘을 쳐다보았읍니다. 보니, 소리개 만이 마악 내려오는 중이었읍니다. 벌써 지녁 햇볕이 두 날개 가를 불그스레 비춰주고 있었읍니다. 이 때는 만이 제 보금자리로 돌아갈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개는 곰을 찾아서 정글의 하늘을 구석 구석 찾아다닌 것이었읍니다. 너무나 빽빽이 드러선 나무들로 말미암아 곰을 찾아내기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웨 그러나?"

하고 발루가 쳐다보며 물었읍니다.

"나는 모오구리가 원숭이떼에 잡힌 것을 보았답니다. 그 애가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합디다. 내가 보니까 원숭이떼들은 강을 건너 원숭이 장거리로 데려갔읍니다. 거기서 그놈들은 하룻밤을 잘는지 모릅니다. 허지만 열흘을 묵

서울까지

선생님 "너희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려면 며칠 걸리겠니?"

생도1 "약 한달 걸리겠읍니다."

생도2 "선생님! 저는 하루 안에 갑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도2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걸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생도들 "하하하……" (부산 내성교 5의3 송 영록)

메 뚜 기

아버지 "너 왜 밤낮 메뚜기만 잡느냐? 메뚜기가 무슨 죄겠냐?"

북남이 "내가 들밭에를 다니니까 메뚜기란 놈이 툭 뛰어 도망가기에 죄가 있는 줄 알고 잡아왔지요."

아버지 "……" (서울 공덕교 5년 강대원)

하나와 다섯

어느 날 영식이가 아주머니 댁에 놀러갔읍니다.

아주머니 "얘 영식아 사탕 하나 먹어봐라."

하시며 다섯 알을 주셨읍니다.

영식이 "아, 아주머니는 셈하실 줄 모르세요?"

아주머니 "왜?"

영식이 "사탕 하나 먹으라시고 다섯개나 주시니 말이여요."

아주머니 "……" (서울 일신교 2의5 최 상국)

을찌도 모르고, 또 한 시간쯤 있다가 딴데로 휙 가버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난 박쥐들에게 어둔 동안 모오구리의 거동을 지키라고 단단히 일렀어요. 그럼 내 전갈은 이것뿐입니다. 평안들하세요. 여러분!"

"수고하였네 란이여. 평안히 쉬게. 다음번에 사냥이 되면 자네를 잊지 않고 네 가릴 양은 남겨 둠세. 기특한 소리개여."

하고 바기라는 외쳤읍니다.

"온 천만에 말씀입니다. 모오구리가 우리들이 쓰는 암호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딱한 사정을 알고,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소리개 란은 휠휠 날아서 제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읍니다.

발루는 경황 없는 데도 마음에 대견해서,

"음 그러면 그렇지. 그녀석이 혓바닥 놀리는 것을 잊지 않었어. 고렇게 작은 꼬마녀석이, 나무에서 나무로 끌려다니면서, 날짐승에게 하는 암호말을 잊지 않았더니."

하였읍니다.

바기라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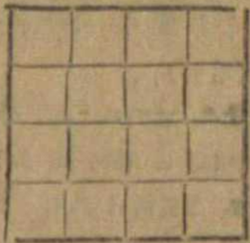
"자아, 어서 우리는 놈들의 장거리, 원숭이의 장거리로 가자!" 그림 김 의환

(다음달치에 계속)

궁금합니다. 능구렁이 카아의 도움을 받아, 발루와 바기라가 모오구리를 찾아 원숭이를 쫓게 되었읍니다. 수 많은 원숭이떼. 그러고 날아다니다 싫이 하는 원숭이떼와, 육지의 사나운 짐승 곰, 표범, 능구렁이와 무시무시한 싸움이 벌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다음달치를 륵기다리십시오. (편집부)

애독자 아협 상타기

새 문 제



왼쪽 그림속에 크고 작은 정방형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은 네모꼴)이 몇개 있읍니까? 아는척 하고 16개라고 하여서는 틀립니다.

1등 20명………학용품 한벌씩
2등 60명………좋은책 한권씩
마감 12월 31일
발표 "소학생" 2월치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 2가 영보빌딩 아협 "소학생" 편집부
주의 되도록 엽서로 보내시고 만일 척척 박사나 다른 작품과 함께 보내시려거던 엽서만한 종이에 답과 학교 학년 이름을 똑똑히 써서 봉투에 넣어 보내십시오.

★10월치 상타기 발표★

바른 대답과 뽑힌 분

12+3+4+5+76 또는 13+24+56+7
이 밖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1등 20명

김복근 (연안 연백교4의3)
김영희 (서울 종로교5의1)
김계희 (사범 부속교5의1)
정춘희 (서울 미창교5의갑)
장혜선 (서울 공덕교6의1)
김형희 (조치원읍신흥동 203)
김정순 (서울 청계교4의1)
정신자 (서울 교동교5의1)
임종식 (서울 덕수교5의1)
신영철 (서울 종로교5의1)
김귀영 (경기 안양교4의2)
김용광 (경기 안양교 6)
조왕희 (서울 종로교5의1)
최수원 (서울 해부동 122)
이수란 (경기 안양교4의1)
정희식 (사범 부속교4의1)
민혜선 (서울 청운교4의3)
윤사혁 (서울 방산교5의1)
탁종협 (서울 경동중학1의1)
배실영 (서울 신당동102의22)

2등 60명

최홍섭 (서울 공덕교6의1)
유순목 (경남 거창교5의2)
이관범 (인천 선화동 21)
이진재 (충남당진합덕교5의3)
서금순 (충남당진합덕교5의3)
임은숙 (충남당진합덕교5의3)
강봉순 (충남당진합덕교5의3)
정일호 (경남 거창교5의2)
신재리 (서울종로지구6가13의46)
황창민 (연안 연백교 6)
박세민 (서울 창신교6의2)
백후기 (강호일제1교5의1)
김계숙 (서울 돈암동63의18)
박정천 (서울 옥인동47의1)
이숙희 (인천 동교 5의5)
김기배 (경남 거창교5의2)
신재상 (개성 만월교3의3)
홍창기 (서울 아현교6의3)
진화철 (영등 신환교5의1)
김무남 (경남부산남민교3의1)
조열현 (개성 만월교 5)
김선경 (서울 미창교5의갑)
홍세기 (이천장호원제1교5의1)
박영희 (경북 풍산교5의1)
최양록 (경북 대구교5의5)
김경호 (전남 광주서석교6)
우정림 (서울경제구락부총무계)
장희경 (서울 창덕교5의1)
홍청진 (서울 창덕교5의1)
이재완 (서울 공덕교6의1)
권창우 (서울 용산교5의5)
김진승 (서울 공덕교5의8)
송효선 (서울 종로교4의2)
최종윤 (서울 수송교5의1)
서진울 (서울 광희교 6)
김병원 (충남보령대천교5의3)
정현영 (서울 신당동420의5)
이원구 (서울 장충교5의1)
송영국 (충북음성대곡교5의3)
설신원 (서울 공덕교5의3)
정진성 (사범 부속교3의1)
유영상 (서울 아현교5의2)
조완영 (인천 축현교5의3)
원용한 (경기 안양교8의4)
엄문수 (서울 공덕교6의1)
박두임 (서울 종로교5의1)
이종림 (서울 혜화교5의7)
이드윈 (서울 종로교5의1)
임종식 (김포 양동신정교6)
김군옥 (강호일제1교5의1)
엄매자 (인천 신흥교5의8)
박용자 (서울 청구교4의6)
엄숙자 (인천 송림교3의4)
김중일 (경북김천시성내동108)
진종고 (경북 김천교6의2)
서기태 (경남 거창교5의2)
이교흥 (서울동대문2가55의21)
홍주연 (서울 종로교5의1)
양정자 (서울 혜화교5의10)
박봉준 (서울 공덕교6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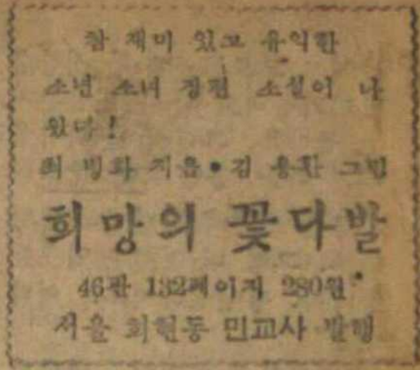
▲"소학생"을 재미 있고 유익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벌써 한달이나 몸이 아파 누워 있읍니다. 앓는 저를 언제나 기쁘게 해 주는 것은 "소학생"입니다. 그런데 요새 어른들 말씀이 종이 값이 올랐다고 책값도 막 비싸지는데 우리 "소학생"은 값이 그대로니 참말 기쁩니다. 값을 안올리고도 언제나 전 같이 아름다운 "소학생"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서울 가회동 1의 23 윤 해선)

△하루 빨리 병이 나시기를 빕니다. 사실 종이 값이 올라 곤난이 많습니다마는 값은 올리지 않고 전보다 더 아름답게 꾸밀 작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기자)

▲저희들은 날마다 "소학생" 오기를 기다리는 차에 책집이 만원이기로 가봤더니 마침 "소학생"이 나온 까닭이었음을 알고 자연 탄복하였읍니다. (충북 음성군 생극교 5의 3 송 영국)

△여러분이 그렇게 "소학생"을 위해 주실수록 "소학생"은 점점 더 여러분의 좋은 동무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기자)

▲사연 주리압고 잘하기 답이나 깔깔 박사, 척척 박사 그밖의 여러가지를 우리가 보낼 때 봉투에 넣지 않고 엽서로 써 보내는 것이 선생님들이 더편하실 것 같습니다. (전안 청천교 5의 1 전 학범)



참 재미 있고 유익한
소년 소녀 장편 소설이 나왔다!
최 병화 지음•김 용환 그림
희망의 꽃다발
46판 132페이지 280원
서울 회현동 민교사 발행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우편으로 보내실 때 일일이 엽서로 붙이시더면 돈이 적지 않게 들 것이니 그런 때는 엽서만한 종이를 떼어서 각각 적어 한 봉투에 넣어 붙이시면 좋겠읍니다. (기자)

▲"소학생"을 꾸미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처음으로 인사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모오구리"를 써주시는 작은돌 선생은 본래 이름이 무엇이지요? (서울 권농동 127의 5 이 현재)

△작은돌은 별호이시고 본 성명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조 풍연 선생님이십니다. (기자)

★눈보라 치고 얼음 어는 겨울. 언덕새 올라서 연을 날리고, 얼음판 위에서 팽이 를 치는 어린분의 씩씩한 모습이 한없이 믿음직스럽게 여겨집니다.

★추위를 두려워 말고 추위에 지지않을 튼튼한 몸이 되어 이 겨울을 즐겁게 유쾌한 겨울로 만듭시다.

★이번달치는 특별히 웃음판을 차려놓았읍니다. 누구든지 한번 읽기 시작하면 허리를 쥐고는 끝까지 읽어 갈수 없을 것입니다. 온식구가 둘러 앉아 실컷 웃고 자꾸 웃어 웃음으로 이 해를 보내주십시오.

★즐거운 새해 경인년이 많은 지식과 많은 건강과 많은 복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려 살금살금 걸어 오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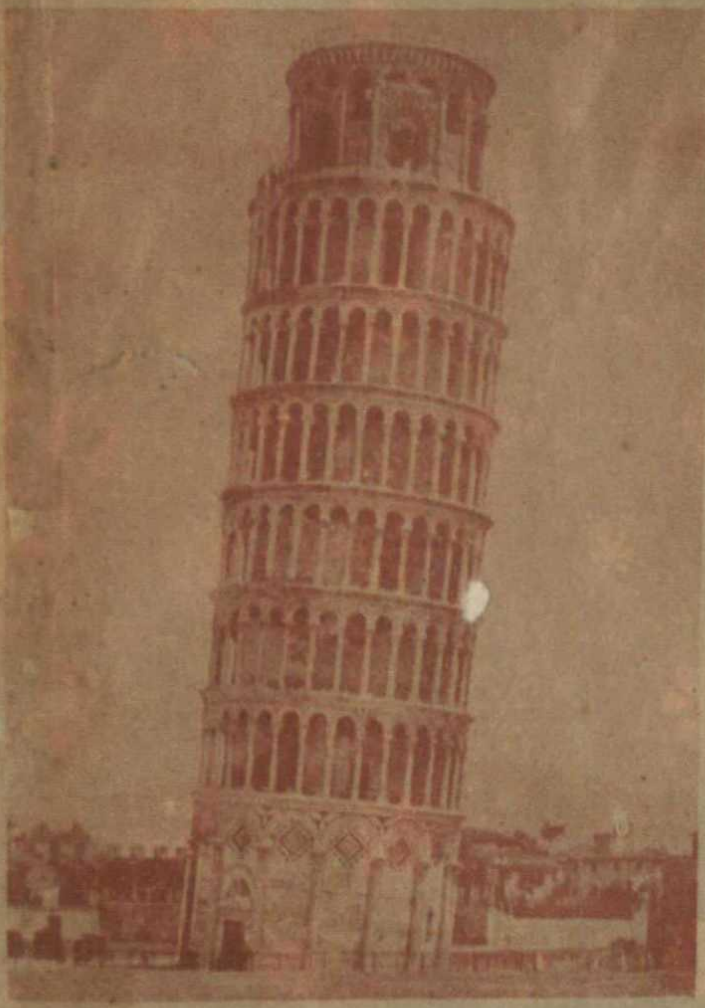
★"소학생" 새해치는 한살 더 늘은 어린분의 손에서 갖은 귀염을 다 받도록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우)

★잡지를 주문하실 때에는 가까운 책사에 부탁하여 나오는 대로 찾아 가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마는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책을 받아 놓지 않는 책사도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직접 본사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반년치를 주문하시면 우편 료금은 이편지에서 부담합니다. 또 진체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매부)

4282年 12月 1日發行
소학생・값 100원
12월치★제73호
編輯兼發行人 尹石重
印刷人 金元植
發行所 兒協
4281年 9月 30日 登錄 第249號
서울 鍾路 2街 82
總販賣 乙酉文化社
서울 鍾路 2街82
振替 서울 2706
電話 光化門 ② 0328 3970 3492 0187
서울신문社 印刷局

★ 許可 番號 第198號 ★ 許可 日字 4278年 7月 5日 ★ 第3種 郵便物 認可 日字 4278年 4月 22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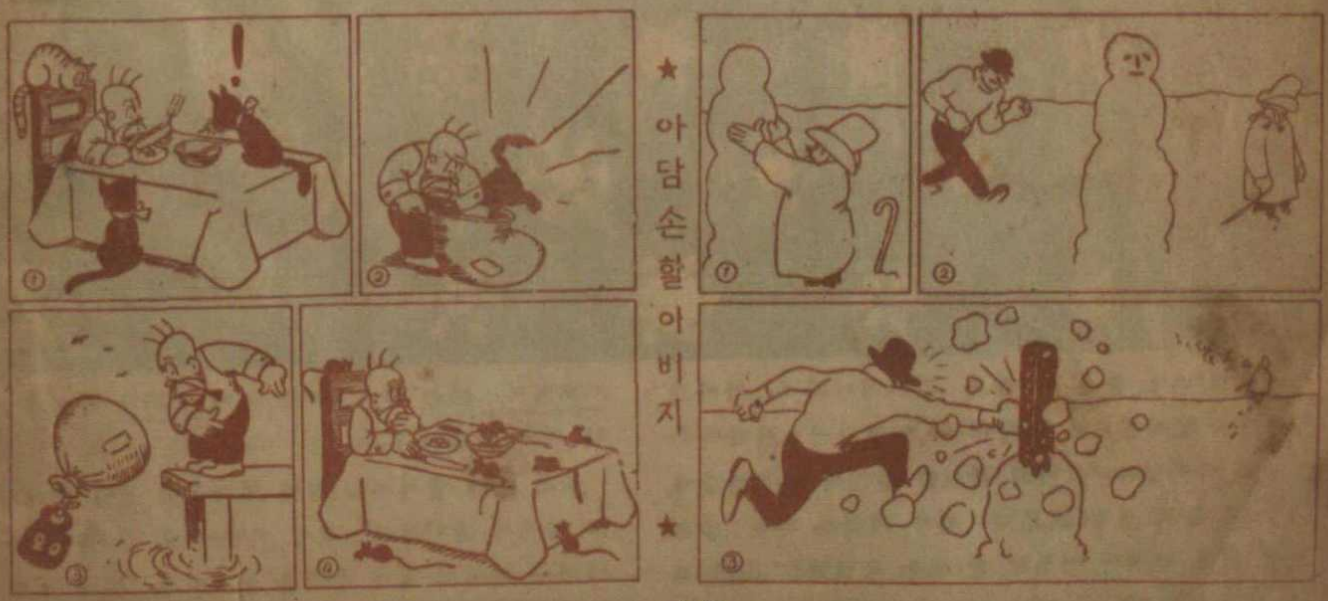
조금 더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



이탈리 피사시에 높이 51m되는 큰 탑이 800년전 세울 때부터 기울어진채 자빠지지 않고 서 있읍니다. 그것은 건축가가 이 탑을 세우는 도중에 한 쪽 지반이 가라앉았으므로 다시 고쳐 세우는 대신 탑의 무게가 다른 쪽에 걸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탑은 우리에게 인력(引力)의 법칙을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즉 탑의 무게가 지구에게 끌리고 있으니까 만일 무게가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탑은 벌써 넘어졌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위태롭게 보여도 탑의 중력(重力)이 지구에 수직(垂直)으로 걸리고 있는 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울 때는 4.5m가 기울어졌던 것이 요즘 12년동안에 다시 7.62mm가 더 기울어졌다는 것을 지난 11월 11일에 과학적인 측량의 결과로 알게 되었읍니다. 피사의 사탑이 앞으로는 더더구나 탑으로서 로 유명해 질지도 모를 것이 아닙니까?



꽃과 같이 아름다운 눈송이

겨울에 오는 눈은 다 같은 것이거니하고 여기기 쉽지마는 현미경으로 볼적에는 여러가지 아름다운 모양이 나타납니다. 마치 꽃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눈의 결정(結晶)은 아주 가늘은 바늘 같은 것이 서로 합쳐서 여섯모 물 또는 육면체(六面體)로 그 모양이 몇 천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위에 있는 그림들은 옛적부터 사람들이 관찰해 온 것으로 아리스토텔렉스라는 약 1,500년 전의 그리샤 학자가 관찰한 것도 있읍니다.

물론 눈이 올적에는 땅에 떨어지는 동안 여러겹으로 겹쳐서 쌓이므로, 결정 모양이 좀 부서지기는 합니다만 자세히 보면 우비를 눈으로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읍니다.